2026
No.128

虎商

KOREA UNIVERSITY
BUSINESS SCHOOL ALUMNI BULLETIN



미래를 향한 일진의 혁신은 세계를 움직이고 있습니다

일진은 글로벌 No.1 자동차 휠 베어링 메이커로서
지난 50년간 쌓아온 기술력과 혁신으로
미래 모빌리티 분야를 선도 하겠습니다



● 휠 베어링 ● 트랜스미션 베어링 ● Axle Roller 베어링 ● EV모터 베어링 ● 초경량 베어링
● 산업용 베어링 ● Truck&Trailer 베어링 ● Chassis & Suspension ● SWG & SI Module ● AMR 휠 구동 시스템

휠 베어링과 샤시부품에서 산업용 베어링, 로봇 부품에 이르기까지
최고의 품질과 서비스로 전 세계 고객들과 함께 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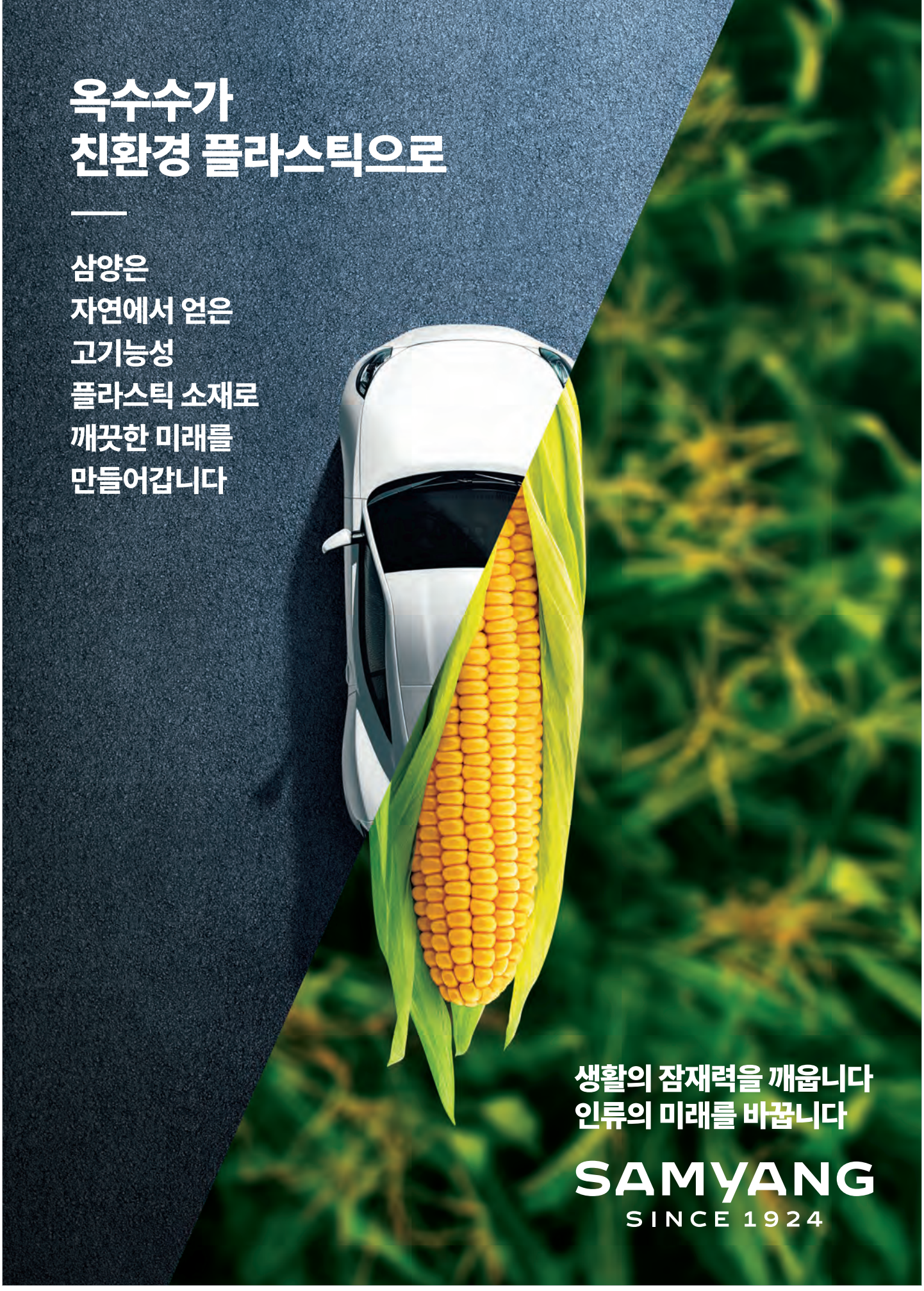
ILJIN

국내법인 | ILJIN GLOBAL • ILJIN GLOBALHOLDINGS • ILJIN BEARING • ILJIN CORP • BEARING ART

해외법인 | 미국 ILJIN USA • ILJIN AMERICA • ILJIN ALABAMA 중국 ILJIN TIANJIN • ILJIN BEIJING • ILJIN CHONGQING • ILJIN JIANGSU • ILJIN SHANGHAI
유럽 ILJIN GmbH • ILJIN MOTION & CONTROL GmbH • ILJIN SLOVAKIA 인도 ILJIN INDIA • ILJIN GLOBAL INDIA

판매사무소 | PARIS (FRANCE) • TURIN (ITALY) • PUNE (INDIA) • BEIJING (CHINA) • YOKOHAMA (JAPAN) • SAOPAULO(BRAZIL)

일진그룹 본사 서울시 강남구 삼성로 527 **Tel** 02-553-1795 **Fax** 02-566-5621 **www.iljin.com**



삼양홀딩스 회장 김 윤 (경영72)

I am your Energy GS 칼텍스

미래를 보는 큰 그림

위험한 현장은 드론이 먼저 살피고
잠재된 위험은 AI가 먼저 감지하며
사람의 안전은 VR로 준비하는
디지털 트윈이 만든 미래의 공장



데이터로 예측하며
기술로 안전을 지키는
디지털 전환을 넘어
AI 기반의 기술 혁신까지

GS칼텍스가 DAX로 미래를 이끌어갑니다

DAX

GS칼텍스의 디지털 & AI 트랜스포메이션(DAX, Digital & AI Transformation)은 디지털과 AI가 함께 발전하는 관계로 DX와 AX를 통합한 개념입니다. DAX는 디지털 기반을 넘어 AI를 통해 의사결정의 속도를 높이고 경쟁우위를 확보하는 혁신의 여정입니다.

AI 기반 공정 예측 | 실시간 데이터 분석 | 디지털 트윈 활용 설비 관리 | VR/AR 안전교육 | AI CCTV 안전 관리 | 위험 작업 로봇 활용 | 드론 점검 활용

KOREA UNIVERSITY BUSINESS SCHOOL ALUMNI



05_ 99학번 모임
06_ 99학번 패밀리데이
07_ 회장단 만찬
08_ 정기 고연전
14_ 수상자 선정회의
16_ 교우 인터뷰
22_ 교우 동정
23_ 교우 기부
27_ 교우 기고
39_ 학번별 소식
60_ 경영대 소식
64_ 신간 소식

고려대학교 경영대학 교우회보 호상 2026 통권 제128호 Vol.50

발 행 일 2026년 10월 27일
발 행 처 고려대학교 경영대학 교우회
발 행 인 이동섭
편 집 인 양정인
인 쇄 (주)보림에스앤피 02-2263-4934
주 소 02841 서울특별시 성북구 종암로 13 (고대 교우회관 310호)
전 화 02-922-3762
팩 스 02-922-3763
이 메 일 kubsa@kubsa.or.kr
홈페이지 www.kubsa.or.kr
입금계좌 하나은행 391-910009-79704 (예금주 : 고려대학교 경영대학교우회)
가 격 3,000원

〈 고려대학교 경영대학 교우회 〉

2026년 행사일정

* 아래의 일정은 상황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일 시	행사명	장 소
3월 24일(화) 18:30	상반기 상임이사회	파크루안(역삼)
4월 25일(토) 10:00	힐링트레킹	개운산
5월 13일(수) 12:00	명예교수 사은회 오찬	LG POSCO관 안영일홀
5월 30일(토) 11:00	상반기 골프대회	몽베르CC
9월 29일(화) 18:30	회장단 만찬	일진청담빌딩
10월 2일(금)~10월 3일(토)	정기고연전	
10월 3일(토) 18:30	고연전 뒤풀이 축제	인생설렁탕
10월 8일(목) 12:00	올해의 교우상 수상자 선정회의	여여재
10월 30일(금) 11:00	골프고연전	페럼CC
12월 3일(목) 18:30	제44회 경영대학 교우의 밤	그랜드 인터콘티넨탈 호텔 서울 파르나스 그랜드볼룸(5층)



99학번 동기회 발대식

일시
2026년 7월 3일(금)

장소
여의도동 진가





경영대 교우회는 2026년 7월 3일 진영우(경영96) 교우가 운영하는 식당인 여의도 진가에서 제44회 경영대학 교우의 밤 행사를 주관할 99학번 교우들을 위한 모임을 열었다.

이날 모임을 위해 89학번 김평국 부회장, 93학번 김현수 부회장, 96학번 이한준, 진영우 교우, 97학번 강 민 동기회장, 김훈경 상임이사, 김 언 교우가 함께 했으며 99학번에서는 A반 남광민 부회장, 김상균 교우, C반 신재국 교우가 참석했다.

교우들은 각자의 소식을 전하고 궁금했던 교수님의 근황과 기억나는 강의 이야기, 최근 타학과 교우들의 도움으로 많은 힘이 됐다는 이야기, 잘 알고 있다고 생각했지만 새로운 모습을 보여 모두를 놀라게 한 동기들의 이야기, 교우회 활동에 관한 이야기 등 다양한 화제로 이야기꽃을 피웠다.

또한 지난 교우의 밤을 주관했었던 93, 96, 97학번 교우들은 교우의 밤을 준비할 당시에 동기들에게 어떻게 연락하고 모이고 의견 조율했는지 조언을 건내며 예년보다 참여가 많지 않았지만 이날 참석한 99학번 교우들을 격려했다.

99학번동기회가 결성되면서 동시에 동기회장까지 선출되었다. 경영대학에서 주관하는 '99학번 Family Day'까지 99학번동기회를 이끌어 보겠다며 남광민 교우가 동기회장직을 수락했다. 이날 모임은 남광민 교우의 "고대로만"이라는 건배사로 마무리됐다.

이렇게 90년대 마지막 학번의 동기회가 결성됐다. 99학번동기회는 경영대학과 협의 후 경영대학에서 주최하는 'Family Day' 행사를 8월 29일에 가지기로 했다.



‘99학번 패밀리데이’ 개최

가족과 함께 찾은 교정,
글로벌 고경의 자부심과 끈끈한 교우회 전통 확인

경영대학은 8월 29일(토) LG-POSCO경영관 안영일 홀에서 ‘2026 KUBS 99학번 패밀리데이’를 열었다. 올해 ‘교우의 밤’을 주최하는 99학번 교우들이 가족과 함께 모교를 찾아 우애를 다지고 한층 발전한 경영대학의 모습을 눈으로 확인하는 자리였다.

환영사에서는 과거 강의실에서 직접 가르쳤던 제자이자 후배인 99학번 교우와 가족들을 반갑게 맞이하는 인사말이 이어졌다. 급변하는 시대에 대응해 추진 중인 ‘3C 4Tech(호기심 · 협업 · 기여 및 AI · 반도체 · 에너지 · 로보틱스)’ 융합교육 전략과 이우환 작가의 작품을 들여 조성한 창의적 교육 환경, 120주년 기념 모금 캠페인 진행 상황 등이 소개돼 교우들의 관심을 모았다. 학장단과 경영대학 교우회도 자리를 함께하며 교우들과 인사를 나눴고, 99학번 동기회장을 맡은 남광민 교우가 답사에 나섰다. 남 동기회장은 “동기와 선후배 간의 끈끈한 연대는 전 세계 어디에서도 찾기 힘든 고려대 경영대학만의 가치”라며 “축구를 잃은 브라질, 간장 시장의 샘표를 떠올려보면 교우회 없는 고려대를 상상하기 어렵다”고 말하며 모교 발전과 교우회 활성화에 힘쓰겠다는 뜻을 밝혔다.

참석자들은 ‘90년대 새내기 추억 영상’을 함께 보며 학창 시절을 추억했다. 이어 KUBE 소속 이태윤 · 이나현 홍보대사가 무대에 올라 경영대학의 지금을 소개해 교우와 가족들의 큰 호응을 얻었다.

오찬 후에는 고려대 특유의 응원 문화를 함께 즐기는 ‘응원곡 다시 부르기’로 하나가 됐고, 홍보대사 KUBE의 안내에 따라 달라진 캠퍼스 곳곳을 둘러보는 투어가 이어졌다.

이번 패밀리데이는 99학번 교우들에게는 모교에 대한 자부심과 끈끈한 유대감을 다시 확인하는 자리가, 함께한 가족들에게는 고려대 경영대학의 자랑스러운 면모를 전하는 뜻깊은 자리가 됐다.

경영신문 717호 발췌



회장단 만찬

감사함을 전하며
어울림으로 하나되는 화합의 시간



경영대 교우회는 작년에 이어 올해도 회장단 만찬을 9월 29일(화) 저녁 6시 30분에 청담동 소재 일진청담빌딩 15층에서 개최했다. 만찬이 시작되기 전, 멀리 한강과 청담동의 야경이 보이는 16층 리셉션장에 교우들이 하나둘씩 모였고 교우 간 인사와 함께 덕담을 나누었다.

70학번부터 04학번까지 작년보다 더 많은 34명이 참석한 만찬에는 한윤상(경영78) 고려대학교 교우회 수석부회장과 유승원 신임 경영대학장. 김언수(경영81) 전임 경영대학장, 신호정(무역86) 대외협력처장이 함께 했다.

그동안 교우회에 적극적인 참여와 진심 어린 지원으로 도움의 손길을 아끼지 않았던 회장단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 앞으로도 교우회 발전에 지속적인 성원과 협력을 확인하는 뜻깊은 시간이 됐다.

안종욱(경영89) 교우가 사회를 맡아 리셉션 이후 만찬 행사를 진행했다. 이동섭 회장은 “여러분들의 도움으로 교우회가 많이 활성화 됐다. 현재 교우회는 시대의 흐름에 맞게 변화하여 유익하고 즐거운 교우회로 정착하는 중이며 앞으로도 발전을 멈추지 않을 것이다. 오늘 이 자리에 와주셔서 감사드리고 60~80년대 기라성같은 선배들과 젊고 열정적인 후배들이 함께 앞으로 큰 역할을 해주실 것을 당부드린다”라고 인사말을 전했다.

이어 신임 부회장 위촉식이 진행됐다. 신임 부회장은 유승원 경영대학장, 고두환(경영95), 오신나(경영98), 장호영(경영04) 교우가 임명됐다.

이날 최고학번인 이재동(경영70) 부회장, 신호정 대외협력처장의 건배제의와 함께 한윤상 고려대학교 교우회 수석부회장의 2027년 3월 24일에 개최하는 ‘교우회 120주년 행사’ 관련한 설명이 있었다. 김언수 전임 경영대학장은 유승원 신임 경영대학장을 소개하며 잘 부탁드린다는 당부의 말씀을 전했다. 만찬 시간에는 와인을 나누며 어울림의 시간을 가졌다.

즐거운 만찬시간을 끝으로 이동섭 회장이 마련한 전통 디저트 세트와 유승원 학장이 준비한 경영대 120주년 기념 마그네틱 세트를 모든 참석들에게 증정하며 모임을 마쳤다.

정 기
고 연 전



2026 정기고연전 승리

이변은 없었다.
작년에 이어 야구, 농구, 럭비 승리로 3승 2패 고려대 승

경기결과

	야구	2:0	승
	농구	69:53	승
	빙구	1:2	패
	럭비	35:11	승
	축구	1:2	패

고려대와 연세대의
정기 친선경기대회

10월 2일(금)
잠실 야구장에서
개막식

10월 2일(금) 오전 10시 잠실 야구장에서 개막식과 함께 정기고연전이 시작됐다.

개막식에서 김동원 모교 총장은 "지축을 울리며 포효하는 호랑이의 기상과 창공을 힘차게 비상하는 독수리의 패기가 이 잠실벌을 가득 채우고 있다"라며 선수들에게 "정정당당하게 승부를 겨루되 상대의 노력과 열정을 존중해 달라"고 당부했다.

윤동섭 연세대학교 총장은 "연세와 고려는 오랜 역사 속에서 가장 뜨거운 경쟁자이자 서로의 성장을 이끌어 온 가장 든든한 동지"라며 "상대가 있기에 우리는 더 강해졌고, 더 높이 도전할 수 있었다"라고 말했다.

2026년 정기고연전은 10월 2일 오전 11시 잠실 야구장에서 야구 경기를 시작으로 오후 3시 잠실 학생체육관에서 농구 경기를, 오후 5시 목동 아이스링크에서 빙구 경기를 진행했다. 둘째 날인 3일 오전 11시에는 목동 주경기장에서 럭비 경기를, 오후 2시에는 같은 장소에서 축구 경기를 진행했다.

정기고연전은 1925년 보성전문학교와 연희전문학교의 정구 대결을 시작으로 2025년인 작년에 100주년을 맞았고 작년과 올해 연이어 정기전 우승으로 통산 전적 22승 11무 20패로 앞서나가고 있다. 특히 최근 5차례 정기전 종합 성적은 4승 1무이며 5년간 패배는 없었다.

·야구 | 2:0으로 승리, 탄탄한 수비로 더 강해졌다

고려대 김동원 총장의 시구로 야구 경기가 시작됐다. 2024년 완봉승의 주인공 정원진(체교23)이 첫 타자에게 사구를 내줬지만 이내 본인의 페이스를 찾아갔고 2회초에는 첫 탈삼진을 기록했으며 3회초에는 세 타자 모두 출루를 허용하지 않았다. 190cm가 넘는 한규혁의 타구에 부담을 느낀 연세대는 2회말에 투수를 교체했다. 4회초부터 연세대는 정원진의 투구를 터치하기 시작했지만 고려대의 탄탄한 수비에 가로막혀 고전했다. 6회초까지 양교 선수들이 득점없이 팽팽하게 맞서다 6회말 기대했던 한규혁이 좌익수 뒤로 가는 솔로포를 폭발시켰고 7회말 이연우(체교26)가 안타와 함께 김재익(체교24)의 희생번트로 2루로 진루하며 득점권 찬스를 만들어냈다. 이후 이정진(체교25)의 짜릿한 적시타로 1점을 추가해 2:0으로 고려대가 승리했다. 고려대가 기분 좋게 정기전 첫 승을 챙겼다.





·농구 | 69:53으로 승리, 초반 난조 뚫고 압도하다

오후 3시에 잠실 학생체육관에서 농구 경기가 열렸다. 1쿼터 초반부터 치열한 접전으로 양교 선수들의 슛이 자주 불발되는 등 득점이 쉽지 않았다. 이어진 2쿼터 역시 점수가 나지 않는 상황에서 양종윤(체교25)의 활약이 막혔던 혈을 뚫었고 심주언(체교24)과 김정현(체교25)의 3점슛, 김정현이 다시 2점을 추가하면서 두 자리 점수 차로 벌려놓아 고려대가 승기를 잡아나갔다. 3쿼터에서 이해솔(연세대)이 간신히 3점 슛을 따내며 분위기 반전을 노렸지만, 연이은 고려대의 득점과 심주언의 맹활약으로 20점 이상 점수 차가 벌어져 넉넉하게 압승의 기운을 가져왔다. 4쿼터에서 연세대는 벤치로 패스 미스까지 하며 전의를 상실했고 고려대는 참가한 모든 선수들이 골고루 득점하며 가진 역량을 총동원하는 모습을 보여줬다. 결과는 69:53으로 고려대가 두 번째 승리를 거뒀다.











· 빙구 | 졌지만 잘싸웠다. 1:2로 패배

오후 5시 목동 아이스링크에서 빙구 경기가 시작됐다. 연세대는 초반부터 공세를 이어갔지만 경기 시작 2분도 채 되지 않아 김다솔(체교26)이 기습 공격으로 선제골을 터뜨렸다. 이후 퍽 점유율이 높은 연세대의 속공은 권우현(연세대)과 강무경(연세대)의 득점으로 이어졌다. 2피리어드에서 고려대는 공격보다 수비 위주의 플레이를 펼쳤고 경기 도중에 퍽이 관중석으로 날아 들어가는 위험한 상황도 연출되기도 했다. 고려대는 선수 2명이 퇴장당하는 숏 핸디드 위기에서 연세대에게 파워플레이 득점을 허용하지 않았으며 골리 이우경(체교25)이 노련하게 기습공격을 잘 막아내며 추가 실점을 잘 막아냈다. 3피리어드에서 고려대는 파워플레이 기회를 얻어 유효 슈팅 수를 늘려가며 연세대에 맹추격을 시도했지만 1:2로 고려대가 석패했다.

· 럭비 | 약속의 후반전, 압승 지켜내다. 35:11로 승리

3일(토) 오전 11시 목동 종합운동장에서 럭비 경기가 열렸다. 연세대는 초반부터 강한 공세로 경기의 주도권을 리드했고 고려대는 라인아웃 실수와 공중볼을 놓치며 불안하게 출발했다. 연세대가 먼저 득점하며 앞서 나갔지만, 고려대는 몰(maul)로 전반 31분 공동민(체교24)이 첫 트라이 득점으로 따라붙었다. 전반 내내 주도권은 연세대에 있었지만, 후반부터 고려대의 반격이 시작됐다. 송재영



(체교24)이 유리한 위치로 볼을 찔러주기 시작하면서 형성된 몰을 끈기있게 밀고 나갔고 공동민의 트라이로 순식간에 14:8로 역전 시켰다. 연세대가 페널티킥으로 3점을 득점하며 쫓아 왔지만, 빠른 돌파로 연세대 진영을 파고든 김현진(체교25)이 트라이 득점으로 추격해 오는 연세대를 따돌렸다. 경기 종료 직전까지 득점이 고픈 고려대는 집중력을 잃지 않았고 배한오(체교26)가 내달려 트라이를 찍으며 35:11. 럭비 우승으로 정기전은 고려대 우승으로 확정지었다.





· 축구 | 아쉬운 역전패, 1:2로 패배

같은 구장에서 오후 2시에 축구 경기가 열렸다. 고려대는 4–3–3 전술로 연세대는 4–4–2 전술을 가동했다. 초반 실점을 방지하고자 탄탄한 조직력으로 연세대를 방어했고 고려대는 무난한 플레이를 펼쳤다. 김민석(체교26)이 위협적인 슈팅을 날리는 등 고려대는 서서히 공격력이 살아나 기습 공격을 시작했고 전반 26분 박강현(체교26)이 수비수 3명을 따돌리며 측면 공략으로 선취점을 만들어내 1:0으로 앞서나갔다. 후반전에서 고려대는 여러 공격루트를 사용하며 연세대의 골망을 위협했지만 득점까지 연결되지 못했다. 양교의 공격이 단조롭게 흘러가던 중, 연세대가 선수를 자주 교체하며 돌파구를 찾더니 후반 19분 교체 투입된 정희승(연세대)이 득점해 1:1 동점이 됐고 추가시간 4분에 연세대에게 추가 득점을 허용하며 1:2로 역전돼 아쉽게 패배했다.






2026 정기 고연전 후배사랑 무료주점
KOREA UNIVERSITY
Yorse
KOREA UNIVERSITY




2026 정기 고연전 후배사랑 무료주점
경영대 교우회
인생설렁탕









후배 여러분 사랑합니다!!

이번 뒤풀이 행사는 목동 종합운동장이 협소해 관람 인원을 수용하지 못하는 문제와 안전과 소음, 쓰레기 발생 등을 우려한 성북구청의 요청으로 모교 민주광장에서 푸드트럭 무료주점으로 대체하려고 했었다. 그러나 재학생 90.1%가 참살이길 폐막제를 희망한다는 여론과 매년 이어져 온 전통을 유지하자는 상인회의 의견을 반영, 다중 인파 운집을 대비해 안전 관리에 신경 쓰기로 하고 모교와 총학생회가 협의한 끝에 8월 초, 기존 참살이길 폐막제를 유지하기로 결정했다. 그래서 이번 행사는 교직원, 각 단과대 학생회가 동원돼 중앙차로에 노란 안전띠를 둘러 폐막제 열기 전까지 학생들의 차로 진입을 통제하고 일방통행으로 관리하며 안전관리에 힘썼고 학생들도 잘 따라주며 안전하고 질서 있게 행사를 즐겼다.

경영대 교우회는 참살이길에 있는 인생설렁탕에서 재학생 후배들을 위한 무료주점 행사를 열었다. 이동섭(경영89) 교우회장을 비롯해 승명호(무역74) 고려대학교 교우회장, 김동원(경영78) 모교 총장, 신임 학장단인 유승원 경영대학장, 이종호(경영89) 부학장, 이현석(경영04) 부학장, 김영규 부원장, 유시진 교수가 뒤풀이의 즐거움을 나눴다. 허남주(경영05), 이건호(경영07), 양지현(경영13) 교우와 경영대 학생들이 행사 스텝으로 참여해 세대를 뛰어넘는 화합의 장으로 고연전 뒤풀이 행사의 의미를 더 뜻깊게 했다.



올해의 교우상 수상자 선정회의

- 영향력 있고 모교·교우회 명성 빛내며 교우들의 자긍심 높이는 후보자들 선정 -







경영대 교우회는 2026년 10월 8일(목) 오후 12시 삼성동 여여재에서 〈올해의 교우상 수상자 선정회의〉를 열었다. 올해의 교우상은 사회 각 분야에서 두드러진 활동으로 경영대학의 위상을 높이고 모교 발전에 기여한 교우들에게 수여하는 상이다.

교우회, 경영대학으로 구성된 심의위원으로는 이동섭(경영89) 교우회장, 김평국(경영89) 부회장, 이번에 새롭게 합류한 유승원 신임 경영대학장, 서희원(경영89) 부회장, 오선근(무역90) 부회장, 조성욱(경영92) 감사이며 양정인(경영95) 사무국장이 간사로 이번 회의에 참여했다.

△기업가 부문 △전문 경영인 부문 △공직자 부문 △특별상 부문으로 구분해 11명의 교우들을 심사했다. 그 결과, 기업가 부문에 김영환(경영66, 벽제외식산업개발 회장), 전문 경영인 부문에 김형곤(경영93, 보스턴컨설팅그룹(BCG) 코리아 대표파트너) 교우를 '2026년 올해의 교우상' 수상자로 결정했으며 특별상에는 김언수(경영81, 전임 경영대학장) 경영대학 교수로 선정했다.

다가오는 12월 3일 그랜드 인터컨티넨탈 호텔 서울 파르나스 5층 그랜드볼룸에서 열리는 '제44회 경영대학 교우의 밤'에서 시상식을 가질 예정이다.


제44회
고려대학교 경영대학
교우의 밤에
교우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2026년 12월 3일 (목) 18:30
그랜드 인터컨티넨탈 호텔 서울 파르나스
그랜드볼룸 (5F)



㈜벽제외식산업개발 회장 **김영환** | 경영66

"한우는 the 떼루아 of 비프다"

대한민국 최고급 한우구이 전문점 벽제갈비와 평양냉면의 명가 봉피양을 이끌어 온 ㈜벽제외식산업개발 김영환 회장을 만나보았습니다.

1. 프리미엄 한식당 '벽제갈비'가 올해로 40주년을 맞았습니다. 회장님의 외식경영 40년의 여정이 궁금합니다.

다녔던 회사에서 나와 퇴직금 1300만 원으로 첫 음식점인 피자집을 했어요. 음악을 좋아하니까 음향기기에 소장한 레코드판을 동원해서 음악다방 겸 피자전문점을 했는데 잘 안돼서 문닫고 어떤 손님의 제안으로 신촌의 벽제갈비를 인수하게 됐어요. 이미 시장에는 정원을 보유한 유명 갈비집이 자리를 잡고 있었지만, 나는 그런 대형 식당보다는 소형 식당으로 시작하되 최고 품질의 한우를 취급하기로 결정하고 긴 여행을 시작했어요. 정직하고 양질의 고기만 취급하면서 상승세를 탔고 매장수도 늘려나갔죠. 또한 평소에 늘 생각하던 대합실 음식의 인식을 바꾸고 싶었어요. 인천공항 첫 개항할 시기에 월세 부담이 엄청난데도 인천공항점을 열었는데 반응이 폭발적이었어요. 인천공항공사가 선정한 '최고매출상'도 받기도 했거든요. 인천공항점의 성공으로 매출액 대비 내야 하는 수수료도 컸지만, 그보다 더 중요했던 건 벽제갈비의 가능성을 재확인하는 것이었습니다. 이후로 방이동으로 본점을 옮기고 프리미엄 식당을 목표로 강남의 타워팰리스점을 열었어요. 특히 타워팰리스점은 품위있는 인테리어와 프라이빗한 공간으로 정재계 인사도 찾을 만큼 유명세가 쌓여 많은 사랑

을 받으면서 최고급 레스토랑으로 자리 매김했습니다.
또 하나의 브랜드 봉피양은 방이동에서 시작했고 벽제갈비에서 지향하는 고퀄리티 전략으로 양념 돼지갈비 가지고 승부했어요. 벽제갈비가 어려울 때 봉피양이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줬죠. 갈비집에서는 냉면이 중요하잖아요. 냉면으로 성공하는게 결코 쉽지 않은 길인 줄 알지만, 소신을 갖고 도전했어요. 우리는 우리의 방식대로 육수를 만들어내겠다는 생각으로 냉면에 목숨 걸었던 박진 주방장, 전설적인 김태원 냉면 장인과 함께 평양냉면의 헤리티지를 담으려고 했는데 레드오션인 냉면 시장에서 그게 통했어요. 2006년도 한겨레 신문에서 냉면 맛집 1위로 기사도 나면서 그 두 가지가 봉피양을 대표하게 됐습니다.


봉피양 평양냉면

2. 회장님께서는 학창시절 어떻게 보내셨나요? 당시 학교 분위기와 취업 상황이 어땠고 어떻게 외식사업의 길을 걷게 되었는지요?

대학 시절에는 교수님께 테니스를 가르쳐 드린 기억이 납니다. 조익순 교수님, 지청 교수님, 문과대 교수님들께 테니스를 가르쳐 드리면서 가깝게 지냈어요. 저는 재무, 회계보다는 마케팅 쪽에 관심이 많았어요. 마케팅을 전공하신 김동기 교수님의 강의가 기억에 남습니다.
학교 다닐 때는 대학생 데모가 많았던 시절이에요. 졸업할 무렵에는 세계적인 오일쇼크가 터지기도 했고 한국은 한창 가발을 수출하고 있었고 섬유로 품목을 늘려 수출하는 등 수출지향 국가로 나가려던 때였지요. 그때 당시 국가 총수출액이 10억 불 정도 되던 시절이었어요. 그럴 시기니까 중화학 공업을 육성시키겠다고 나라가 주도적으로 나서고 있었고 기업에서도 인재가 많이 필요했던 시절이어서 일자리를 골라서 갈 수 있었어요. 저는 네 군데 정도 합격했는데, 어디로 갈지 생각하다가 다방면에서 배울 수 있는 영풍상사에 들어갔어요. 첫 직장이었지요. 저는 그때도 굉장한 미식가였어요. 직장 다니면서 맛집에 많이 다녔어요. 건설회사 다니다가 인수합병으로 회사를 나오면서 난 미식가니까 음식점 해야겠다고 생각했어요.

3. 벽제갈비가 대한민국 최고의 고기구이 전문점이 되기까지, 평양냉면을 선두주자로 만든 봉피양을 운영하면서 여러 시행착오와 위기가 있었을텐데요.

그동안 저는 55번의 폐점을 경험했어요. 세종시에서는 공무원법 강화로 저녁 장사가 안되다보니 17년 만에 철수한 적도 있고, 벽제갈비의 성공을 잇고자 대중적인 음식인 설렁탕에도 도전했지만 고품질 한우를 고집하다보니 저렴하게 낼 수 없는 한계에 부딪혀 11번이나 실패한 적도 있어요. 가장 컸던건 인천공항의 봉피양을 포기해야 했던 일이었습니다. 인천공항 제1터미널 교통센터에 야심차게 봉피양을 냈었는데 반응이 너무 좋았어요. 웨이팅까지 하며 공항 직원들도



벽제갈비 타워팰리스점

많이 찾았지만, 매출을 올려주는 갈비나 전골보다 객단가 낮은 단품요리, 탕류가 잘 팔려서 이윤이 안났어요. 게다가 비싼 월세를 감당하기 어려워 18년 만에 철수해야 했습니다. 그래도 벽제갈비의 인천공항 진출 성공은 우리에게 상당히 의미가 있었고 인천공항 일대의 여행객 수요가 커서 포기할 수 없었어요. 그러다 파라다이스 그룹과의 좋은 인연으로 파라다이스시티에 입점했고 가족 단위로 찾는 손님들 덕에 실패를 딛고 일어날 수 있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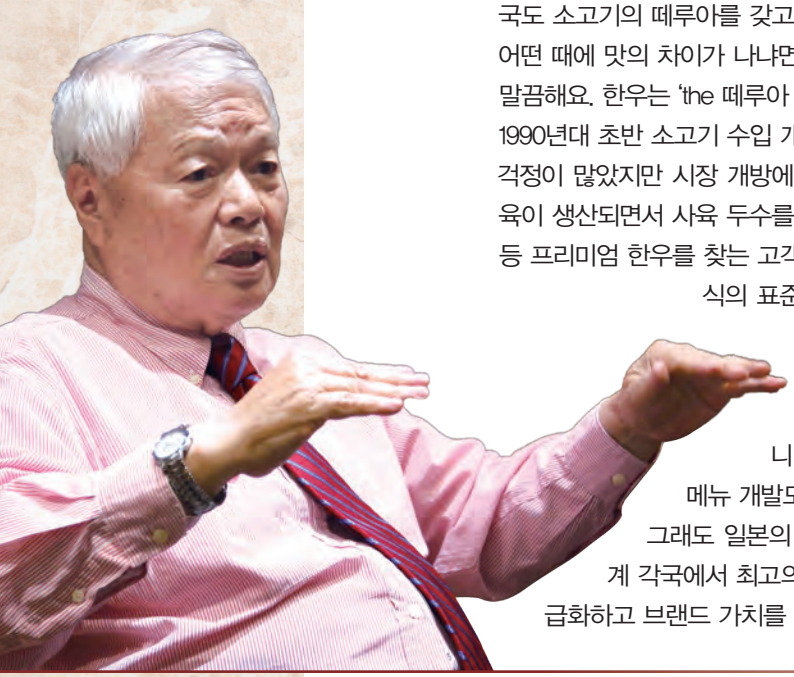
또한 인천공항의 성공으로 해외에서 프랜차이즈 요청이 빈번해졌을 때 중국 베이징시 허난호텔에 4% 로열티 받고 1호점을 냈었어요. 이후로 웨이하이, 칭다오까지 세 군데에 프랜차이즈를 내며 조금씩 영역을 넓혀갔지만, 점포를 운영할 때 표준화, 균일화가 아직 어려운 시장이 중국이고 법이 엄격해지면서 상류층이 주 고객이었던 벽제갈비가 큰 타격을 입어서 철수할 수밖에 없었어요. 저는 중국 시장 실패를 계기로 얻은 건 타협 없는 고품질 재료와 맛을 고수하는 것 그리고 조리, 기술, 심지어 고객관리, 서비스를 메뉴얼화한 효율 경영 시스템의 중요성이었습니다. 너무 많은 실패를 통해 깨닫고 보완해 나가다 보니 지금에 이른 겁니다.

4. 힘드실 때 버티게 해준 원동력이 있다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이 들어서 음식점 경영에 뛰어들었기 때문에 어려움을 잘 버텨낼 수 있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대기업에 재직 당시 경제적 지식과, 현장 경험을 쌓고, 문제해결 능력을 키웠기 때문에 어떠한 문제를 봤을 때 객관적으로 어떻게 풀어가야겠다는 시각이 생겼고, 뜻깊은 가치를 창출할지 고민할 수 있었어요. 그러면서 목표가 구체적으로 상향이 되는 점도 큰 원동력이었습니다. 미국시장에 한우에 대해 알리면서 한국 문화적 가치를 융합해 선보여야겠다는 사명감이 생겼어요. 그래서 제 아내가 도기로 그릇을 만드는 '무나재'라는 브랜드를 론칭해 그릇 제작에 동참했고 경기가 어려울 때도 디자인 파트의 핵심역량을 끌어올리는데 집중했어요. 이런 목표와 방향이 생기니까 어려움을 만나도 견딜 수 있었습니다. 특히 고베 비프 현장을 참관하면서 느낀건, 고베 비프보다 한우가 더 훌륭한 종자고 우수한 고기라는 확신이 생겨서 향후 세계에서 프리미엄 소고기를 원하는 시장이 만들어졌을 때 경쟁력을 갖추고 자신있게 해외시장에 도전해야겠다는 생각도 했어요. 이러한 꿈이 있기에 힘들어도 버틸 수 있었습니다.

5. '고베비프, 그 이상의 한우'를 표방하며 최고 품질의 한우만을 고집해 왔습니다. 한우의 경쟁력은 무엇이고 좋은 고기를 얻기위해 어떤 노력을 기울이고 계십니까.

한우는 한국의 땅과 문화가 만들어낸 고유한 미식 자산입니다. 최고로 치는 프랑스 와인의 맛은 토양, 물, 기후, 계절변화, 사람의 정성 등이 결정짓는데 그 개념을 떼루아(Terroir)라고 합니다. 와인의 떼루아가 있듯, 고기에도 떼루아가 있습니다. 스페인의 돼지고기 중 이베리아반도에서 도토리, 올리브 등을 먹고 자라 고소한 풍미가 특징인 이베리코 돼지는 스페인 땅이 만든 최고의 돼지고기인 것처럼, 유라시아반도 끄트머리에 있는 사계절이 뚜렷한 한



국도 소고기의 떼루아를 갖고 있어요. 전 세계에서 종자밭이 제일 좋습니다. 한우와 수입육은 어떤 때에 맛의 차이가 나냐면 삶았을 때입니다. 수입육은 삶았을 때 누린내가 나지만 한우는 말끔해요. 한우는 'the 떼루아 of 비프'라고 생각합니다.

1990년대 초반 소고기 수입 개방을 위한 우루과이라운드 협상으로 소고기 시장이 개방되면서 걱정이 많았지만 시장 개방에 맞서 한우 업계에서 고기의 퀄리티를 올리느라 애썼어요. 고급육이 생산되면서 사육 두수를 올려 한우 사육이 크게 늘어났고 한때 유행했던 한우 오마카세 등 프리미엄 한우를 찾는 고객층이 형성됐지요. 우리는 2000년대 초반 인천공항 출점부터 음식의 표준화, 규격화를 시작하면서 의도적으로 일두구매(一頭購買:소 한 마리 통째로 구매)를 하기 시작했어요. 또한 비선호 부위의 고기를 소비하기 위해 봉피양을 다점포 전략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좋은 품질의 갈비, 등심, 안심을 경쟁적으로 확보하려다 보니 최고 경매가의 소를 사서 양곰탕, 설렁탕도 하고 비선호 부위 메뉴 개발도 하게 된 겁니다.

그래도 일본의 와규의 유명세를 따라가기엔 아직 부족합니다. 와규는 이미 세계 각국에서 최고의 프리미엄 소고기로 인정받고 있어요. 우리나라도 품질을 더 고급화하고 브랜드 가치를 많이 알려야 합니다.

6. 가장 뿌듯했던 순간은 언제였나요?

최고의 한우를 확보하기 위해 두 개의 정육점도 운영 중입니다. 경매받은 소를 그곳에서 자체 손질하고 매장에 공급하죠. 프리미엄급 한우를 확보하기 위한 우리의 노력을 서울의 어느 특급호텔이 알아줬습니다. 언제든 제일 맛있는 한우를 구하는게 쉽지 않다는걸 알았고 흔들림 없이 정진하는 저희에게 납품을 의뢰한거죠. 저는 100년 정육점의 꿈이 이뤄질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고 그게 저의 가장 큰 프라이드가 됐어요.

또한 문화가 이어가려면 2세들도 신념을 공유해야 해요. 2세들을 빨리 경영에 참여 시키는게 중요합니다. 우리 두 아들도 빨리 참여해서 큰아들이 벽제갈비와 벽제평양냉면을, 작은아들이 봉피양과 정육점을 운영하는 중입니다. 큰아들이 승계받고 벌써 15년이 지났어요. 브랜드 가치를 올리고자 그동안의 55개 점포 폐점을 강행하고 브랜드 가치 유지에 해가 되는 요소를 빨리 제거시켜서 매장과 브랜드를 승계해 주는게 가장 큰 숙제였는데 과감히 결정했던 점이 지금와서 볼 때 잘했다는 생각이 듭니다.

코로나 이후로 온라인 수요가 급격하게 늘어났잖아요. 그걸 큰아들이 온라인 판매의 중요성을 언급하며 곤지암에 제조공장을 지어


벽제갈비



벽제갈비 더청담에서

자동화 시스템을 갖추고 자사몰을 차려서 고객의 기대에 부응했던 점도 참 뿌듯했습니다. 벽제갈비의 업그레이드 버전 '벽제갈비 더 청담' 또한 큰아들이 밀어부쳐서 만들었는데 수많은 실패와 폐점을 겪고 그곳에 자리 잡은 점도 참 뿌듯했어요.

7. 벽제갈비를 최고의 브랜드로 이끌어 오셨는데 중요한 가치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삼성 창업주 이병철 회장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사람을 알고 믿고 쓰기가 가장 어려워요. 그렇지만 이 모든 일은 사람이 하는거지요. 철 들고나서 사업하면서 깨달은 것은 핵심역량을 가진 인재들이 있어야 하고 그 인재들을 키워나가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첫걸음으로 대학과 산학 협력해서 대학 과정을 만들었어요. 그 인재들이 4년 수학해서 정부, 교육부가 인정하는 대학 졸업장을 받고 나니까 업무를 대하는 태도가 달라졌어요. 그 결실로 저희는 지금 30년 이상 장기근속 조리사가 5명, 20년 이상 조리사도 10명 정도 됩니다. 물론 그 과정 중에 의견이 안맞아 이탈하는 사람들도 많아요. 그렇지만 중요한 것은 오너가 지향하는 목표를 함께 갈 의지력 있고 열정이 충만한 사람으로 만들어 조직문화를 바꿔나가는 것입니다. 그 핵심 인재들이 선도해서 모범이 될 때 강력한 조직문화가 만들어지고 원칙을 지키는 프리미엄 브랜드의 가치가 지켜진다고 생각합니다.

8. 향후 계획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LA에는 한인 식당 중에 오래되고 유명한 음식점들이 많지만 글로벌 스탠다드를 갖추지 못해 세계적 브랜드로 자리잡은 곳이 드물어요. 해외 대형 레스토랑 브랜드와 경쟁하려면 조리방법, 서비스 등 모든 부분이 메뉴얼화 되어야 하죠. 장인의 감각을 숫자로 데이터화 해야 합니다. 그렇게 해야 치폴레, 딘다이펑처럼 경영을 효율화해서 미국 레스토랑과 경쟁할 수 있겠지요. 교육은 메뉴얼 하나로 끝나지 않아요. 본사로부터 정기적인 품질 점검을 받아야 하고, 조리사들도 본사에 가서 기술교육 등 실습이 지속적으로 이뤄져야 합니다. 어려운 일이지만 저는 미국 빅테크 기업이 몰려들며 강력하게 부상하고 있는 텍사스에서 혼을 쏟아 봉피양을 오픈할 생각입니다.

또한 메밀 평양냉면은 세계 최고 수준의 면 요리라고 생각해요. 메밀은 밀가루에 비해 칼로리가 낮고 글루텐 프리인데다가 루테인 성분이 풍부하고 소화도 잘되니까 저칼로리를 선호하는

요즘 트렌드에 적합하지요. 그동안 평양냉면은 문화적 차이로 해외에 선보이기 어려웠지만 평양냉면 공장을 내어 메밀 건면을 개발했고 메밀이 갖고 있는 훌륭한 장점이 있으니 해외에 알릴 수 있겠다고 생각합니다. 김치도 저희 공장에서 직접 만드니까 한우 수출이 가능해지면 평양냉면과 한우갈비, 김치를 알리고 싶습니다.

아울러, 무방부제 우동면 중 제일 유명한 이나니와면을 활용해 새로운 면 요리 세 가지를 개발해서 '탕과 누들스' 브랜드를 일반 대중형 식당 브랜드로 자리잡게 하는 것과 고급 생선 몇 가지와 우리 소고기 브랜드인 설화육, 자연산 도미솥밥을 먹을수 있는 '운정'이라는 행복한 식당을 만드는 것. 내 남은 기간에 하려고 하는 일이에요.

9. 벽제갈비와 봉피양은 방문한 손님들에게 어떠한 공간으로 기억되기를 바라나요?

여러분 뒤에 보이는 액자에 '양길(羊吉)'이라고 쓰여있지요? 양은 예로부터 상서로운 동물로 여겼어요. 이곳에 오시는 고객분들에게 상서롭고 길한 일만 생기시기를 진심으로 바라는 마음입니다. 그리고 누군가 이곳으로 초대받으면 기쁜 일이 되고, 축하받는 자리가 되고, 좋은 기억이 남고, 고마운 마음을 전하는 공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모시고 싶은 분이 생기면 '벽제갈비, 봉피양으로 가야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곳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서울에 그런 근사한 공간 좀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10. 외식사업으로 창업을 준비하는 교우들에게 조언 부탁드립니다.

2012년부터 고려대학교 외식업교우회를 만들어 7년 동안 회장으로 이끌어왔어요. 확실히 고려대 출신들은 근성있게 잘합니다. 핵심을 잘 짚고 열정적이어서 성공한 사람들 많더군요. 창업을 준비하는 분께, 제가 전하고 싶은 조언은 진정성을 갖고 꾸준히 오래 할 생각으로 뛰어들었으면 좋겠어요. 첫 창업 비용 때문에 여유가 부족할 때는 입지에 맞게, 자금 사정에 맞게 일에 혼을 쏟으면서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고대인의 뚝심을 갖고 열정을 쏟으면 가야 할 길과 성공 루트가 보일겁니다. 규모의 크고 작음은 중요하지 않아요. 작게 시작하더라도 진정성 있게 열심히 하면 사람들이 알아보고 줄 서게 돼있어요. 대신 맛이 없으면 어떤 재주로 뛰어넘을 수 없어요. 좋은 재료로 맛있게 하는 본인만의 솜씨를 어느 정도 마스터한 다음에 음식에 쏟은 정성을 전하는 마음으로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 교우동정



손재일(경영84)
2026년 9월 중순
손재일 교우가 한화인재
경영원장에 임명됐다.



마정만(무역85)
2026년 10월 1일
마정만 교우가 에프앤에프
대표이사에 취임했다.



권대영(경영86)
2026년 10월 1일
권대영 교우가 재정경제부
1차관에 임명됐다.



윤성천(경영86)
2026년 6월 12일
윤성천 교우가 한국저작권
보호원 원장으로 임명됐다.



강종석(경영87)
2026년 6월 18일 강종석
교우가 한미전략투자공사
초대 이사로 임명됐다.



정광석(경영90)
2026년 7월 14일 정광석 교우가
IBK기업은행 부행장(글로벌
사업그룹장)에 선임됐다.



류종영(경영92)
2026년 7월 27일
류종영 교우가 해양수산부
대변인으로 임명됐다.



안병남(경영95)
2026년 7월 6일
안병남 교우가 법무법인 광장
수석전문위원으로 영입됐다.

▪ 교수동정



박광태(서울대 산업공)
모교 박광태 교수가
정년퇴임과 함께
명예교수에 위촉됐다.



김진배(서울대 경영)
모교 김진배 교수가
정년퇴임과 함께
명예교수에 위촉됐다.



유승원(서울대 경영)
2026년 9월 1일
모교 유승원 교수가
경영대학 학장으로 취임했다.



이종호(경영89)
2026년 9월 1일 모교
이종호 교수가 경영대학
교무부학장으로 취임했다.



김영규(서울대 경영)
2026년 9월 1일 모교
김영규 교수가 경영전문대학원
부원장으로 취임했다.



이현석(경영04)
2026년 9월 1일 모교
이현석 교수가 경영대학
연구부학장으로 취임했다.



정재호(서울대 경제)
2026년 9월 1일 모교
정재호 교수가 경영대학
기획부학장으로 취임했다.

▪ 결혼을 축하합니다.

전봉진(경영76) 2026년 9월 13일 딸 성은 양 결혼
노 철(경영79) 2026년 10월 4일 아들 규헌 군 결혼
양상문(경영79) 2026년 11월 21일 아들 성화 군 결혼
이준영(경영06) 2026년 7월 4일 본인 결혼

▪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이종환(상54) 2026년 1월 28일 본인 별세
이종순(경영56) 2026년 8월 3일 본인 별세
이창윤(경영65) 2025년 12월 22일 본인 별세
김진석(경영69) 2026년 9월 1일 모친상
박광수(경영72) 2025년 본인 별세
손정윤(경영74) 2026년 7월 11일 부친상
정상호(경영74) 2026년 8월 7일 모친상
강준구(경영75) 2026년 4월 24일 본인 별세
김영식(경영75) 2026년 7월 31일 모친상
강창용(경영79) 2026년 7월 31일 빙모상
조청명(경영79) 2026년 8월 10일 빙모상
전상길(경영83) 2026년 9월 28일 모친상
정창훈(무역85) 2026년 8월 11일 모친상
김무경(무역89) 2026년 10월 2일 부친상
서천호(경영89) 2026년 7월 16일 부친상
이황철(경영91) 2026년 8월 3일 부친상
이규원(경영95) 2026년 10월 12일 부친상
김영일(경영97) 2026년 7월 3일 빙부상
서건웅(경영97), 김지영(경영99) 2026년 10월 8일 빙모상, 모친상

▪ 임원위촉

부회장 유승원 경영대학장
89학번 서영성, 이강훈
98학번 오신나

상임이사 97학번 강 민

‘3대째 고려대 교우’ 구용서 용현인더스트리 회장 가족 5억 원 기부

“의학 연구와 병원 발전에 써달라”



구승회 교우 가족

할아버지부터 손자까지 3대가 고려대에서 수학한 ‘고대 가족’이 나눔의 철학을 전했다. 고려대학교(총장 김동원)는 6월 25일 오후 3시 30분 본관 프레지던트챔버 홀에서 구용서 ㈜용현인더스트리 회장 가족의 의학발전기금 5억 원 기부식을 가졌다.

이번 기부는 고려대 의과대학 의학 연구 및 고려대의료원·구로병원 발전을 응원하는 뜻을 담아 마련됐다. 기부금은 의학발전기금 1억 원, 의료원발전기금 2억 원, 구로병원 발전기금 2억 원 총 5억 원으로 의학 연구와 교육 역량강화, 의료환경 개선, 환자 중심 진료체계 고도화를 위해 활용될 예정이다.

이번 기부는 구용서 회장(경영전문대학원 최고경영자과정 9기) 가족이 고려대와 오랜 인연을 이어온 ‘고대 가족’이라는 점에서 뜻깊다. 구용서 교우를 시작으로 자녀들은 물론 손자 세대까지 고려대에서 수학하며 학교와 교우 사회에 꾸준히 애정을 보태왔다. 이러한 모교 사랑과 나눔의 정신을 바탕으로 지난 2017년 ‘고대 가족상’을 수상한 바 있다. 특히, 구용서 회장과 배우자 최현희 여사는 어려운 이웃과 미래 인재를 위한 지원은 물론 문화·예술·사회공헌 분야에서도 공동체 발전에 기여해 왔다.

이러한 삶의 철학은 자녀들에게도 이어졌다. 구 회장의 장남인 구진회 교우(기계공78)는 기계공학부 교우회인 ‘호기회’제15대 회장을 역임하며 교우 사회 발전에 기여했고, 구진회 교우의 아들인 구자영 교우(경영07) 또한 고려대에서 수학하며 모교 사랑을 3대째 이어갔다.

구 회장의 차남인 구승회 교우(경영82, 삼정KPMG 부회장)는 82학번 동기회장을 역임하고, 현재 고대교우회 감사와 고대경제인회 골프회장을 맡고 있으며, 2024년 고대경제인대상을 수상했다. 2025년 6월에는 학교발전기금 1억 원을 기부하는 등 모교와 교우 사회를 위한 나눔을 지속하고 있다.

이날 기부식에는 구용서 교우와 최현희 여사, 장남 구진회 교우와 자부 김혜경, 손자 구자영 교우와 손부 신지원, 증손 구본겸, 장녀 구찬회 교우(경영전문대학원 경영연구과정 MSP 78기), 차남 구승회 교우까지 4대가 참석해 자리를 빛냈다. 고려대에서는 김동원 총장, 신호정 대외협력처장, 윤을식 의무부총장 겸 의료원장, 민병욱 구로병원장, 편성범 의과대학장, 엘앤피코스메틱 권오섭 회장(KU-Medicine 발전위원장)이 참석했다.

2026년 6월 26일 커뮤니케이션팀 기사 발췌

진길섭 후원자, 고(故) 전춘옥 교우를 기리며 경영대학에 1억 원 기부

"학문과 교육에 힘쓴 남편 故전춘옥 교우(상61, 가톨릭대학교 명예교수)를 기리는 마음"



진길섭 후원자와 전원종씨

진길섭 후원자가 지난해 작고한 고(故) 전춘옥 교우를 기리고 후학을 위한 나눔을 실천하기 위해 고려대학교 경영대학에 1억 원의 발전기금을 기부했다.

기부식은 8월 27일(목) 고려대학교 본관 4층 프레지던트 챔버에서 열렸다. 이날 행사에는 고(故) 전춘옥 교우의 배우자인 진길섭 후원자를 비롯해 자제 전원종 씨, 정광수 교우(상61), 김윤장 ㈜원창 회장(상61), 이강남 전 한국은행 부총재, 윤계섭 서울대학교 명예교수 등 전춘옥 교우와 인연을 맺어온 인사들과 김동원 총장, 김언수 경영대학장, 신호정 대외협력처장이 참석했다.

이번 나눔에는 평생 학문과 교육에 힘쓴 남편 故전춘옥 교우를 기리는 마음이 담겼다. 진길섭 후원자는 전춘옥 교우의 모교인 고려대학교의 발전과 후학 양성을 위해 경영대학 120 MARCH 발전기금으로 뜻을 전했다.

경영대학은 개교 120주년을 맞아 지난해부터 120억 원 규모의 'KUBS 120 MARCH'모금 캠페인을 추진 중이다. 조성된 기금은 경영대학의 핵심 전략인 3C(Curiosity · Collaboration · Contribution)와 4Tech(AI · 반도체 · 에너지 · 로보틱스)를 기반으로 한 교육 혁신을 뒷받침하는 재원으로 활용되며, 학생 지원 장학금 확대와 실무형 협업공간인 'KUBS Trading Zone'조성 등 미래 인재 양성을 위한 다양한 사업에 투입될 예정이다.

김언수 경영대학장은 "경영대학의 발전과 학생들을 위한 뜻깊은 나눔에 깊이 감사드린다"라며 "소중한 마음을 오래 기억하며 교육환경 개선과 미래 인재를 양성하는 데 의미 있게 활용하겠다"라고 밝혔다.

김동원 총장은 감사 인사를 전하며 "고(故) 전춘옥 교우의 모교를 위하여 따뜻한 마음을 전해주신 데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라며 "소중한 나눔의 뜻이 대학의 발전과 미래를 위한 의미 있는 발걸음으로 이어지도록 대학에서도 함께하겠다"라고 말했다.

2026년 9월 2일 커뮤니케이션팀 기사 제공

진길섭 후원자, 경영대학 발전기금 1억 원 기부-'전춘옥 스터디룸' 조성

고(故) 전춘옥 교우 기일에 맞춘 기부, "하늘에서 함께하고 있다"



8월 27일 오전, 본관 1층 총장실에서 작은 기부식이 열렸다. 고(故) 전춘옥 교우의 배우자인 진길섭 후원자가 경영대학 발전기금으로 1억 원을 기부하는 자리였다. 전춘옥 교우가 세상을 떠난 지 꼭 1년이 되는 날이었다.

이날 행사에는 진길섭 후원자와 아들 전원종 씨를 비롯해 61학번 동기들이 함께했다. 기부금은 현대자동차경영관 B316호 '전춘옥 스터디룸' 조성에 쓰였다. 축하할 자리였지만, 참석자들은 먼저 고인을 위한 묵념으로 행사를 시작했다.

식사 자리에서는 60여 년을 함께한 벗들의 회고가 이어졌다. 한 참석자는 대학 1학년 시절 강의실에서 처음 만났던 순간을 떠올렸다. 자리에 놓인 노트에 적힌 이름 때문에 옆자리를 피했다가, 훗날 같은 직장에서 다시 마주치게 됐다는 이야기였다. 전춘옥 교우는 가톨릭대학교 경영학과 교수로 재직하며 후학 양성과 연구에 힘썼다. 가톨릭대학교 의료경영대학원장을 역임했으며, 2001년에는 한국세무학회 제12대 회장을 맡았다.

화제는 이내 61학번 시절의 캠퍼스 풍경으로 옮겨갔다. 지금의 건물들이 들어선 곳엔 운동장이 있었고, 본관을 중심으로 한 배치는 마치 병영을 닮았다는 우스갯소리도 나왔다. 6·25 전후의 격동기와 상과대학 시절 교수진에 대한 기억도 하나둘 소환됐다. 강의를 오가며 만났던 은사들의 이름을 짚어보는 사이, 60여 년 세월의 간극은 잠시 잊힌 듯했다.

대화는 어느새 오늘날 학교의 모습으로 향했다. 국제화된 캠퍼스와 세계 대학 순위를 향한 도전을 지켜보며 참석자들은 격세지감을 감추지 못했다. 마침 식탁에 오른 120주년 기념 와인 라벨을 두고도 지난 세월과 앞으로의 120년을 함께 준비하자는 뜻풀이가 오갔다.

가장 마음을 울린 것은 투병 중이었던 전춘옥 교우의 마지막 시간에 관한 이야기였다. 세례를 받기로 하면서 곁을 지켰던 것은 오래전부터 신앙으로 이어져 온 벗들이었고, 그 순간을 함께한 이들의 기억은 식사 자리에 잔잔한 여운을 남겼다.

한 참석자는 조병화 시인의 시 한 구절을 빌려 벗을 향한 그리움을 대신 전했다. 때때로 생각나는 친구가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를 노래한 대목이었다. 참석자들은 "인간의 감각으로는 함께하지 못하지만, 신앙 안에서는 여전히 함께 있다"라고 고인을 기렸다.

경영대학은 이번 기부를 계기로 조성된 '전춘옥 스터디룸'이 후학들의 학업 공간으로 오래도록 쓰이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경영신문 717호 발췌

이진규 고려대 명예교수, 경영대학 장학기금 1억 원 쾌척

"경제적 어려움으로 어려움 겪는 후배들 학업에 전념하는 데 도움이 되길"



이진규 명예교수

이진규 고려대학교 경영대학 명예교수(경영75)가 모교 후학들을 위해 1억 원을 쾌척했다. 고려대는 기부금을 바탕으로 '이진규 장학기금'을 조성해 경영대학 학생들의 학업 지원에 활용할 예정이다.

고려대(총장 김동원)는 9일(수) 오후 2시 본관 1층 총장실에서 '이진규 장학기금'기부식을 개최했다. 이날 행사에는 이진규 명예교수와 김동원 총장, 유승원 경영대학장, 신호정 대외협력처장, 김언수 전 경영대학장 등이 참석했다.

이번 기부는 이진규 명예교수가 강단에서 실천해 온 교육철학을 은퇴 이후에도 후학을 위한 나눔으로 이어갔다는 점에서 의미가 깊다. 이 명예교수는 본교 경영대학장 재임 당시(2010년 11월~2013년 1월) 등록금 지원을 넘어 가계 곤란 학생들의 실질적인 생활을 돕는 'KUBS 생활장학금'을 신설하는 등 학생 지원의 범위를 넓혔다.

이진규 명예교수는 "경제적 어려움으로 학업에 어려움을 겪는 후배들이 학업에 전념하는 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라는 마음으로 기부를 결심했다"고 말했다.

김동원 총장은 "학장 시절부터 이어져 온 교수님의 후학 사랑과 교육 철학이 이번 기부를 통해 다시 한 번 이어지게 돼 뜻깊다"라며 "기부자의 뜻에 따라 장학기금을 소중하게 운용하겠다"고 감사의 뜻을 전했다.

한편, 이진규 명예교수는 미국 아이오와대학교에서 경영학 박사학위를 취득한 뒤 웨스트버지니아대학교 교수를 거쳐 고려대 노동대학원장과 경영대학장 등을 역임했다. 인사관리 분야 전문가로 연구와 후학 양성에 힘써왔으며, 2014년에는 팔레스타인 베들레헴대학교 이사로 선임돼 국제교육 협력에도 기여했다.

2026년 9월 10일 커뮤니케이션팀 기사 발췌



풍경소리

허공을 가르는 찬 바람이 지나가고 나면
낙엽들이 솨솨 소리를 지르며 굴러다닌다

처마끝의 풍경소리는 망자를 위한
요령소리처럼 뎅그렁 뎅그렁 울려퍼진다

은은하게 울려오는 풍경소리에
나의 생각마저 어느 순간 멈추어버린다

잠깐의 꿈속 세상에서
꿈을 꾸며 살다가 사라져가는 인생

가람의 기왓장에 싸늘한 햇살이 머무는
완연한 가을에 스님은 걸망을 메고 길을 나선다

나는 누구인가
무엇을 위해서 사는가 어디를 향해서 가는가

흰 구름 맑은 바람 제 스스로 오가는데
물 흐르듯 흘러가는 덧없는 인생은 어디로 ...



김 진 하
상66·시인

교우기고
수 필

정년 후 창업한 대한민국 CEO





유상옥
상55·코리아나화장품 회장

필자는 젊은 시절 30년간 박카스를 키우던 정든 회사를 뒤로하고 1988년 연말 즈음, 독립하여 내 회사를 만들어 보기로 큰마음을 먹었다. 89년 코리아나 화장품을 출범한 후 제품이 소비자들에게 알려지고 매출이 점점 늘어나면서 경기도 고양에 있던 임시공장으로는 늘어나는 생산량을 점점 감당할 수 없게 되었다. 공장신축이 시급해졌다. 당시 수도권 지역은 공장 건설 제한 구역이었으므로 충청도 천안의 정촌리 허름한 과수원 땅 1만여 평을 평당 10만원에 매입하였다. 천안이 가까워 교통이 편리하고 경부고속도로 바로 옆에 있어 간판을 세운다면 광고효과도 노릴 수 있는 곳이었다. 게다가 전기와 교통도 양호했고 인력수급도 쉬운 지역이었다. 부지를 매입하여 군청에 공장건설 허가를 신청한 후 이 일대가 군사보호지역에 연계되어 있다는 사실을 확인하게 되었다. 공군본부에 타당성을 의뢰하자 군부의 인근 공장 제재사항을 지키는 조건으로 승인을 받았다. 우여곡절 끝에 산업은행에서 15억원 융자를 받고 1989년 9월 드디어 공장 건설의 첫 삽을 뜰 수 있었다.

이듬해 1990년 6월 공장이 완공되었다. 가슴이 벅차 오를 만큼 진한 감동의 순간이었다. 이웃마을 농민이 공장의 폐수가 농산물에 피해를 준다며 찾아왔다. 공장에 폐수정화시설이 있고 폐수처리조 안에 금붕어를 기르고 선진국 수준을 지키며 운영하고 있는 시설을 보여주었다. 폐수장에 분수를 설치해 깨끗이 정화 된 물이 하늘 높이 뿜어져 장관을 이루게 하였다. 경부고속도로변에 위치한 이점을 활용코자 가로 100미터가 넘는 공장벽면에는 '코리아나 화장품'과 '코리아나 송파기술연구소'라는 간판을 내걸어 고속도로를 지나는 사람들에게 회사를 알리고 있다. 덕분에 광고효과를 많이 보았다.

공장 건물, 연구소, 창고를 갖추어 짓고 울타리, 정문, 급수대, 폐수대, 분수대, 운동장, 기념 식수, 정문 밖 주차장, 그 옆으로 자리한 넓은 수목공원이 있다. 그 안에 화장품의 원료가 되는 연구 식물을 기르고 배수로가 갖춰져 있다. 각종 식물이 자라고 춘하추동, 계절 따라 꽃이 핀다. 수목공원 입구엔 사람 모양의 돌 인형이 세워져 손님을 맞이하고 공원 내부



“守素明德 開物成務”
수 소 명 덕 개 물 성 무

자기 본바탕을 잘 지키고
덕을 밝히며

물자를 개발해서
자기의 직무를 성취해나간다

는 잡초 없이 수목이 깨끗이 정리되어 있다. 그곳에 마련된 시비가 있다. 필자의 스승인 고려대학교 교수이자 후에 홍익대 총장을 지내신 이항녕 선생의 시 비석이다. 필자의 이름 석자를 첫 자에 넣어 지어주신 삼행시이다. 선생님 마음에 드신 제자라고 평가하시어 시를 지어주셨다.

俞久한 화공용모 만인에 호감 주고

相生의 덕을 지녀 나보다도 타인 생각

玉 같이 깨끗한 경영 천하 밝게 하도다

-갑오춘 삼각산하 九十生 小皐 李恒寧

이 시를 납작한 하얀 돌에 각자하여 공원 안 작은 호숫가에 세웠다. 화장품 생산 공장이 폐수를 정갈하게 처리하여 내려 보내고 예비지를 공원과 비슷하게 가꾸어 청결하고 아름다운 단지로 조성하고 있다. 공장 내부 조경을 가꾸니 마치 공원 속에 자리 잡은 화장품 제조공장처럼 보인다. 식물원 안의 백송을 코리아나 송파기술연구소 앞에 옮겨 기르고 있다. 몇 해가 되어도 잘 자란다. 백송이 잘 크고 연구소의 화장품 연구 개발도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

필자가 좋아하는 소나무도 몇 그루 공장 안으로 옮겨 심고 공장과 마을 사잇길에 메타세콰이어를 심었다. 잘 자라는 속성수여서 마치 공장이 숲 속에 위치한 분위기다. 예전에 조부께서 쓰시던 돌 방아 한 틀을 공장 소나무 밑에 옮겨놓고 공장과 연구소 곳곳에 내가 수집한 민속품과 그림들을 전시하고 있다. “해봤어? 해 봐!” 공장 입구에 걸려있는 정주영 회장의 문구다. 이 넓은 공장은 한 기업가의 성취의 산물이다. 오랜 그의 신념인 “수소명덕 개물성무(守素明德 開物成務)”의 본보기이다.

2026. 04月

松坡 **俞相玉**
㈜코리아나화장품 회장
코리아나 화장박물관장, 코리아나미술관장
韓國隨筆家協會 副理事長

교우기고
수 필

자주 찾는 곳





春崗 **황인강**
상61·수필가

일주일에 3~4회는 족히 된다. 그렇다고 매번 즐거운 마음으로 달려가는 것은 아니다. 걷고 싶은 마음이 묵직한 가방을 메고 야무진 발걸음으로 찾는 곳은 어디일까.

누이 좋고 매부 좋은 식이다. 두 가지가 해결이 가능할 것 같아 기대하고 즐거운 마음이다. 집 서재에서의 책읽기와 글쓰기를 다른 장소에서 하는 것도 흥미를 돋아준다. 신문보기나 책읽기가 지겹기까지 느낄 적이 있다. 이런 경우 다른 장소로 옮겨서 새로운 기분으로 즐기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장소 변동이 효과 면에서도 좋을 경우가 종종 있지 않은가.

나이를 조금 먹어 보인다는 내가 배낭을 메고 도서관에 출퇴근을 하다시피 한다. 신기한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는 것 같다. 도서관을 자주 이용하는 이유를 따진다면 걷는 운동이 동시에 되기 때문이다. 화정역 부근에 사는 대학 친구가 사람들의 왕래가 많고 번화가인 고양 S백화점 근처 가까운 아파트에 살고 있다. 그는 오전에 집 안에서 걷기 운동을 한다고 자랑한다. 오후에 가서야 아파트 부근의 산이나 도로를 걷는다고 했다.

자기의 취향에 따라 운동을 다양하게 하고 있음으로 누가 뭐라 하겠는가. 58평의 거실을 빙빙 돈다고 해서 이왕이면 밖에서 하는 것이 어떻겠냐고 이야기를 했을 뿐이다. 웃으면서 지금까지 15년 넘게 해왔으니 괜찮다고 한다. 좋다. 이왕이면 밖에서 하는 것이 좋지 않겠냐고 농담으로 제안했다. 밖에서 호흡하며 보폭을 넓게하는 효과도 있어 권유를 했던 것이다.

10여 년 전 어느 날 신문지상의 광고에서 나는 둘레길 걷기에 호기심이 발동했다. 그 이후로 둘레길 걷기를 10년을 지속했다. 둘레길 마니아가 되어 버린 것이다. 매주 목요일이면 수필창작 교실에서 글공부를 한다. 한국문인협회 평생교육장이 있는 안국역에서 하차했다. 지금은 전 역인 경복궁역에서 하차한다. 한 역 전(前)에서 내려 다음 역까지 걷기로 한 것이다. 귀가할 때도 똑같이 다음 역으로 걸어가 승차한다. 시간은 20분이 더 걸린다. 광화문 일대와 경복궁을 관람하는 관광객이 많아 걷기에 조금 불편하지만 한 역이라도 더 걷기를 선택한 것이다.

오고 가며 광화문 주변의 정부 청사와 미 대사



관 등을 바라보며 지나간다. 그 일대의 빌딩이 주는 안정감이 마음에 든다. 고궁과 관광객, 교통량의 과다 등을 보며 나라의 발전상을 체감한다. 지난 세월의 광화문 일대의 풍경과 오늘의 발전상을 비교하며 금석지감 세월의 무상함을 느끼기도 한다. 과거 어느 유명 인사의 출퇴근 때 버스정류장 전(前)역에서 내리고 사무실까지 걷는 기사를 젊었을 때 읽은 적이 있다. 나도 그분의 걷기 의욕에 감탄하여 전역에서 하차한다.

그는 건강과 생활 관리가 철저한 사람으로 알려져 있다. 건강을 위한 노력을 전해주는 하나의 예다. 그분의 절제력에 동참했다. 매주 도서관을 이용하는 것이 나에게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고맙기 이를 데 없다. 걷기로 다리 힘을 키우며 도서관을 다니는 것은 다른 어떤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큰 재미요 운동이다. 걷기는 만병을 고치는 자연치유의 요법이라고까지 하지 않은가. 두 가지를 얻기 위해 부지런히 도서관 이용을 즐기고 있다.

오래전부터 독서를 열심히 하는 한 분을 도서관에서 만났다. 어느 날 용기를 내어 인사를 나누고 그분과 대화를 나눴다. 같은 나이대이고 3년 전에 뇌경색을 앓은 적이 있어 말이 어눌하고 행동도 느리다고 본인 스스로 이야기한다. 그런 사람이 책읽기를 즐겨하는 것을 보고 놀라움을 느낀다. 한 주에 2권의 책을 완독한다고 했다. 걷기에 대해 많은 재미있는 이야기를 나누기도 했다. 중세 유럽 지식인들이 걷기를 좋아하고 '지식인들의 특권'이라고까지 하며 자랑했다고 하지 않는가.

칸트, 루소, 괴테 등 세계적인 작가와 사상가들이 걷고 산책하는 것을 생활화하여 주위 사람들에게 권유까지 했다. "모든 생각이 걷는 자의 발끝에서 나온다"는 독일 문호이자 시인 철학자인 니체의 말을 곱씹어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프랑스의 어느 사회학자가 걷기는 "세계를 느끼는 관능에의 초대"라고 극찬을 했다. 걷는 운동이 몸과 마음을 조화롭게 하여 안정을 주며 삶에 찾아오는 우울증 치료에도 매우 효과적이라고 하는 말에 귀 기울일 필요가 있다.

두 가지 실익을 얻을 수 있는 독서와 건강 챙김의 일석이조를 기대하면서 오늘의 도서관으로 향하는 발걸음도 가벼워야 하지 않겠는가.

교우기고 칼럼

K-경영, "빨리빨리'를 넘어 글로벌 스탠더드로

-박정희 대통령의 공상농사(工商農士) 정책 전환으로-



이 경 순
상61, 계간 <글의 세계> 회장

세계 경제가 저성장의 늪에 빠지고, 지정학적 리스크와 공급망 재편으로 불확실성이 그 어느 때보다 높아진 시대입니다. 글로벌 시장에서 생존을 고민하는 기업들에게 최근 가장 주목받는 화두가 있답니다. 바로 서구식 경영학 교과서의 공식을 넘어 새로운 해답을 제시하고 있는 **'K-경영(K-Management)'**입니다.

K-경영(K-Management)이란 한국 특유의 문화적, 사회적 특성을 바탕으로 위기를 기회로 바꾸는 한국 기업만의 독창적이고 역동적인 경영전략과 성장방식을 의미합니다. 이는 과거 서구식 경영을 단순히 모방하던 것에서 벗어나, 글로벌 시장에서 성공을 거두며 세계적인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과거 한국의 기업은 선진국의 경영기법을 배우고 추격하는 '패스트 팔로어(Fast Follower)'에 불과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상황은 완전히 역전되었습니다. 한국 특유의 문화적·사회적 토양에서 배태된 K-경영은 이제 글로벌 시장에서 판을 흔드는 '퍼스트 무버(First Mover)'의 무기로 자리 잡았습니다.

그렇다면 전 세계가 주목하는 K-경영의 본질과 성공 DNA는 과연 무엇인가!?

첫째, K-경영의 가장 강력한 무기는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속도와 실행력(Speed & Agility)'입니다. 한국 사회를 지탱해 온 특유의 '빨리빨리' 문화는 기업경영 현장에서 신속한 의사결정과 과감한 투자로 직결되었습니다. 시장의 변화를 감지하는 순간, 수 개월 혹은 수 년에 걸쳐 검토하는 서구 기업과 달리 한국 기업들은 즉각적으로 방향을 선회하고 실행에 옮깁니다. 이 압도적인 속도는 불확실성이 지배하는 현대 비즈니스 정글에서 기회를 선점하는 가장 확실한 차별화 요소입니다.

둘째, 한국 기업의 유전자 깊숙이 새겨진 '위기 극복의 DNA(Resilience:회복력)'입니다. 한국은 지난 수십 년간 1997년 IMF 외환위기와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등 숱한 국가적·경제적 충격을 겪었습니다. 그렇지만 역설적으로 한국 기업은 위기를 마주할 때마다 주저앉기보다 이를 체질 개선과 글로벌 시장 점유율 확대로 도약하는 발판으로 삼았습니다. 위기 속에서도 빛을 발하는 뚝심과 기업가정신은 어떠한 역경도 기회로 바꾸는 K-경영만의 저력을 만들어냈습니다.

셋째, 단순한 모방을 넘어선 '도발적 혁신(Disruptive Innovation)'입니다. 삼성전자와 SK가 메모리 반도체 시장에서 보여준 '초격차 전략'은 후발



주자가 어떻게 글로벌 표준을 정의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교과서적 사례입니다. 기술을 단순히 수용하는 데 그치지 않고, 누구도 따라올 수 없는 압도적인 기술 격차와 차별화된 고객 경험을 창출해 산업 전체의 패러다임을 주도하고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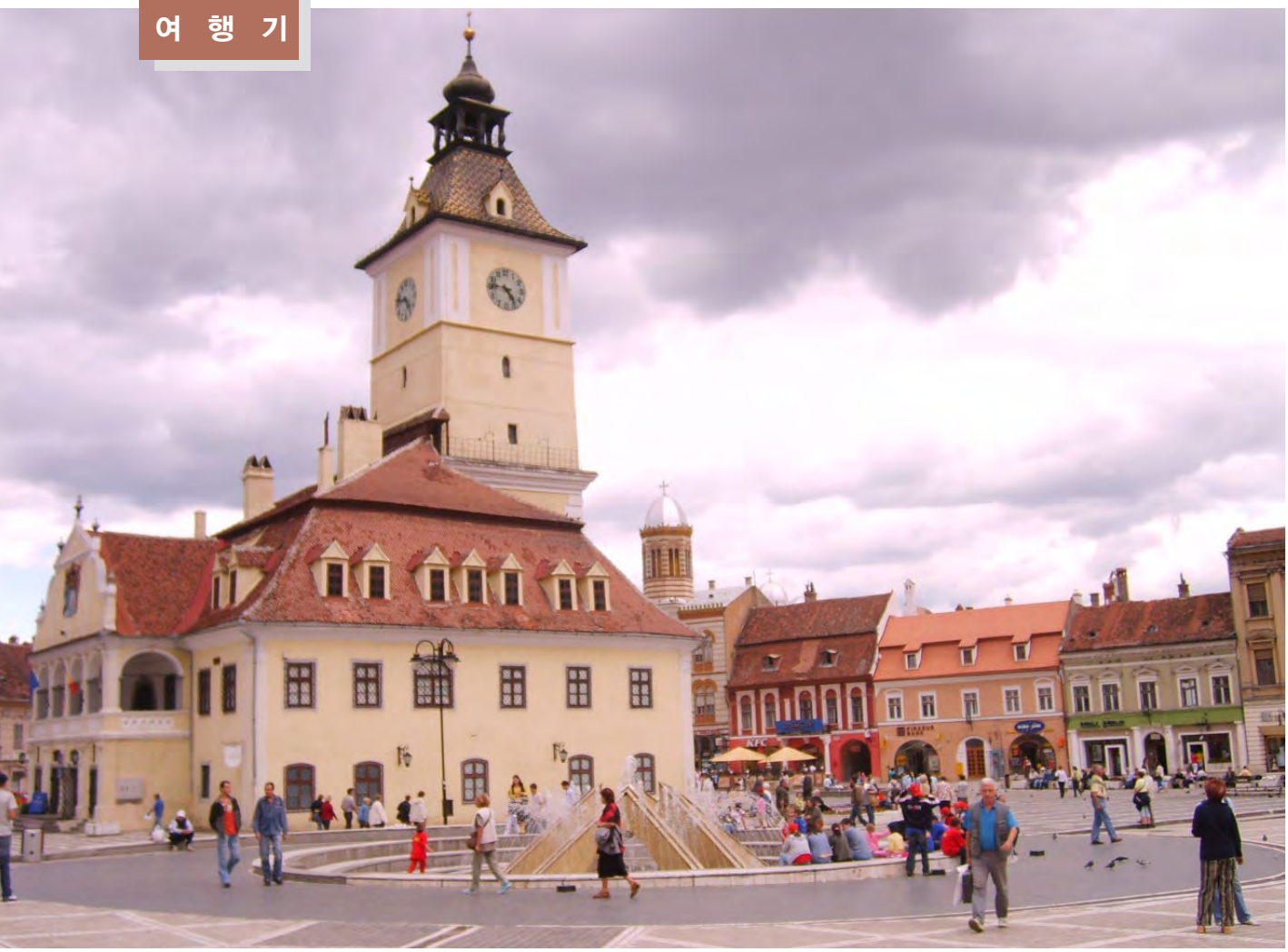
마지막으로, 이를 지탱하는 '가족주의 기반의 리더십과 조직 문화'를 빼놓을 수 없습니다. 강력한 오너십을 바탕으로 단기 실적에 연연하지 않는 과감하고 장기적인 대규모 투자가 가능하며, 위기 상황에서 전사적인 몰입과 결속력을 이끌어 내는 저력이 여기서 나옵니다. 현대자동차가 품질 경영과 공격적인 글로벌 현지화 전략을 밀어붙여 세계 탑티어 자동차 기업으로 도약한 배경에도 이러한 결단력과 조직력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물론 K-경영이 만병통치약은 아닙니다. 수직적이고 속도 중심적인 문화는 자칫 창의성과 다양성을 위축시킬 수 있으며, 급변하는 글로벌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규범 속에서 투명성과 포용성을 더욱 높여야 한다는 과제도 안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K-경영이 가진 역동성과 실행력은 오늘날 전 세계 경영인에게 시사하는 바가 큽니다. 완벽한 계획을 세우느라 기회를 놓치기보다, 속도와 뚝심으로 위기를 정면 돌파하며 새로운 길을 개척해 온 K-경영의 역사. 그것은 단순한 한국적 경영 방식을 넘어, 불확실성의 시대를 항해하는 글로벌 경제의 새로운 나침반이 되고 있습니다.

이는 박정희 대통령의 공상농사(工商農士)로 첫째 工-생산(제조)이고, 둘째 商-수출이고, 셋째 農-농사이고, 넷째 士-관료입니다. 기득권 세력을 보호하는 망국적 사농공상(士農工商)의 성리학 시대를 거꾸로 뒤집어 새마을 운동이 점화된 근대화가 K-경영의 밑바탕이 되어 오늘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기업과 국가는 현대사회를 구성하는 두 개의 거대한 축입니다. 기업은 이윤 추구와 효율성을 바탕으로 경제적 가치를 창출하고, 국가는 공공의 이익, 법 집행, 사회적 안전망을 통해 공동체를 유지합니다. 오늘날 두 주체는 단순한 분리를 넘어 경제 안보와 첨단 기술 경쟁 속에서 긴밀하게 협력하고 때로는 갈등하는 복합적 관계를 맺고 있습니다. 우리 모든 국민과 정치인은 기업인을 생산적 사업가로 바라보는 미래적 시각을 갖춰야 합니다.



스파툴루이 광장

Romania
루마니아

김 종 순
경영62



꼭 그곳에 가 보아야 한다는 생각이 오래전부터 내 마음속에 있었다. 지난해 크로아티아 여행이 끝나고 난 후 시도를 해 보았지만 비행 노선이 쉽지 않았고 무엇보다 겨울은 해가 짧아 여행 기간이 두 배로 늘어날 수 있다는 계산에 포기했다. 올해는 한때 구소련 체제에 있었던 동유럽의 여러 나라를 둘러볼 예정이다.

루마니아의 수도 부쿠레슈티(Bucharest)에 도착했다. 이 도시에서는 택시회사가 승객에게 받을 요금을 결정해 시에 신고하고 그 금액을 자동차에 부착해 승객이 택시를 선별해 탈 수 있게 한다는 말을 들었다. 상황파악을 한다고 이쪽저쪽을 살피

고 있는데, 환전소가 눈에 띄어 이곳 돈으로 최소한의 경비만 마련했다. 주위를 두리번거리는데 같은 비행기에 탑승했던 어느 부부가 자판기에서 번호표를 뽑고 있었다. 친절하게도 표를 사는 방법을 가르쳐 주어 번호표를 뽑으니 내가 탈 택시 번호가 영수증처럼 찍혀 나왔다. 외국인을 위해 참 편리한 제도라고 생각했다. 택시를 기다리는 시간이 채 1~2분도 지나지 않았는데 기사가 차에서 나와 짐을 실었다. 시내로 들어오는 도로의 오른쪽과 왼쪽에는 아주 오래 전부터 가꿔진 울창한 나무들이 숲을 이루고 있었고 가로수인지 공원인지 구별이 되지 않은 그 숲이 끝없이 이어져 무척 놀랐다. 나의 막연한 생각에는 과거 공산주의 체제의 나라들은 외형적으로도 자유민주주의 국가들과 다른 점이 있겠다고 생각했는데, 이렇게 아름다운 숲길을 이룬 루마니아 국민들이 과연 그 당시 공산주의 체제에 제대로 순응했을까 궁금했다. 호텔에 도착해 짐을 풀고 보니 방과 응접실 규모가 우리나라 호텔 스위트룸 같이 넓고 쾌적해 이 나라 국빈 대접을 받는 것 같았다.

이튿날 아침 6시에 루마니아 중부, 성경에 나오는 시내 산의 이름을 딴 시나이야(Sinaia)에 있는 펠레슈 성(Castelul Peles) 성에 가기 위해 호텔 앞에서 안내자를 만났다. 펠레슈 성으로 가는 버스는 대형 버스인데 아마 45인승 정도는 되어 보였다. 버스는

펠레슈 성



부부, 연인, 가족, 친구 사이의 여러 나라에서 온 사람들이 영어로 듣고 이해하는 그룹으로 빈자리가 눈에 띄지 않을 정도로 꽉 차 있었다.

루마니아는 BC 1세기에 강력한 중앙집권적인 다치아(Dacia) 왕국을 건설하고 106년 로마제국에 점령당해 1세기 반 동안 로마의 속주국으로 살았다. 272년 로마군 철수 후에도 로마인 대부분이 잔류해 다치아 민족과 혼합되어 오늘날 루마니아 민족의 원조가 되었다. 9세기는 불가리아 제국이 지배했고 10세기 말부터는 러시아가, 13세기는 몽골이 지배했다. 1862년에 루마니아 국명을 공식 채택했고 1866년 입헌군주제를 채택해, 프러시아 호헨쫄레른계 왕족인 카롤(Carl)1세를 국왕으로 옹립했다. 그 당시 유럽국가들이 본토 출신 가문들 간의 권력투쟁을 방지하기 위해 외국의 왕을 추대하는 경향이 있었다. 이날 우리가 찾아가는 펠레슈 성은 카롤 1세의 여름 별장이었다.

카르파티아 산맥의 울창한 산속으로 약간의 오르막을 계속 달리고 있는데 스치는 산도, 계곡도, 하늘도, 구름도, 눈부신 햇살도 이 모두가 요정이 만들어 놓고 잠시 사라진 것같이 신비로웠다. 산하면 스위스를 떠올려 보는 나는 이런 정경을 스위스에서는 본 적이 없었다. 나무와 산자락이 하모니를 이루어 푸른 하늘을 가리고 희고 푸른 옷 입은 구름은 보일 듯 말듯 한데 나는 차에서 내려 이들과 놀고 싶었다. 산이 높아 계곡도 깊어 흘러가는 물줄기를 그 왕은 발견하고 이곳에다 여름 별궁을 지었을까? 역사가들은 독일의 변방 스위스 어느 산속 마을과 같아 선택했다고 한다.

펠레슈 성에 도착했다. 성 입구에 즐비하게 늘어선 예쁜 집들은 궁 안에서 일하던 사람들이 살았다고 한다. 왕이 독일인이고 독일어를 구사했기 때문에 모든 시종들이 독일인이었다고 한다. 우리 전통 한옥 문의 빗살처럼 나무로 삼각형, 사각형, 마름모





의 모양으로 이리저리 엮어서 집 전체에 검은색 문양으로 선을 그리고 있었다. 참 멋지고 아기자기 했다. 집 역시 독일 집 같다는 생각에 쉴 새 없이 카메라를 움직였다. 성 입구에는 독일어로 Gasthaus라 쓰여있었다.

Peles Castle. King Carol 1 and Queen Elisabeth. 이 성은 19세기 산악지대 부체지(Bucegi) 산 아래 지어졌다. 우리는 궁 안으로는 들어가 유창하게 영어로 말하는 궁의 전문 해설사를 따라다니면서 설명을 들었다. 궁 내부는 서부 유럽의 궁전과 다르게 아기자기하고 오밀조밀한 모양이 참 아름다웠다. 카롤1세는 이 성을 건축할 때 사재를 털어서 왕비 엘리자베스를 배려했다고 한다. 그녀는 그 시대(1890)의 최고의 지성인으로서 7개국어를 구사하고 시, 음악 등 예술에 뛰어나 수많은 예술품과 호화로운 장식품을 수집했다. 화려한 내부장식을 눈여겨 보면서 감탄했다. 이 장식은 그 당시 유럽 최고이며 오리엔탈 풍이었다. 벽면에 가득 채운 장식과 그림 조각도 신기하지만, 나의 눈을 끈 천장은 더 매력적이었다. 높이도 높지만 오색찬란한 스테인드글라스에 그림을 그려 넣어 자연 채광(햇빛)으로 성안을 환하게 해주는 현란함에 눈이 부셨다. 성 내부에는 160여개의 방이 있으며 각료들의 회의실, 연회장소, 음악실도 있었다. 1903년에 조성된 무기의 방에는 4천점에 달하는 무기류가 전시되어 있었다. 나는 영어가 잘 들리지 않아 아예 그 해설사를 따라다니지 않고 펠레슈 성의 역사를 카메라에 담기만 했다.

벽에 걸린 엘리자베스 왕비의 초상화를 보고 한참 동안 그 곁을 떠날 수가 없었다. 기품 넘치고 단아한 왕비는 새하얀 드레스를 입고 아기를 업고 있었다. 나의 눈에는 왕비가 아니라 어느 집의 어머니 같았다. 그 아름다운 여인도 운명을 비켜 갈 수 없었는지 마리아 공주는(1871-1874년) 먼 나라에 가버려, 카롤1세는 사촌의 아들을 양자로 입양해 왕위를 계승했고 입양한 가족과 친척을 그 부근 노란성에 살게 했다고 한다. 1914년 카롤1세가 세상을 떠나자 그의 묘를 이곳에 두었다.

펠레슈 계곡의 이름을 딴 펠레슈 성은 유럽 최초로 계곡의 낙수를 이용해 전기를 생산해 조명을 밝혔고 난방도 사용했다고 한다. 한 때 차우세스쿠도 이 별장에서 살았고 공산주의가 붕괴되고 난 후, 루마니아 당국은 왕 미하이 1세에게 이 성을 돌려주어, 왕의 계통이 유지되게 했다. 1921년생인 미하이 1세는 9살에 왕위에 올라 제2차세계대전이 끝난 이후 독재자 차우세스쿠에 의해 시민권을 박탈당했고 스위스와 영국 등을 오가면 살았다. 이 화려하고 아름다운 성의 관리비를 충당하기 위하여 여행객들에게 궁내에서 사진을 찍을 때 입장료를 포함해 별도의 35레우(Leu)의 루마니아 돈을 받았다.

추위는 조금 누그러졌고 브라쇼브(Brasov) 인근의 작은 도시 드라큘라 성으로 이름을 떨치고 있는 브란성(Castelul Bran)에 도착했다. 자동차에서 내려 경사가 만만찮은 언덕길로 숨을 헐떡이며 올라가니 성의 입구가 나왔다. 성의 입구라고 하기에 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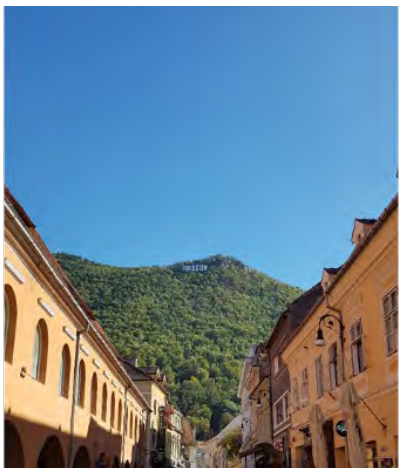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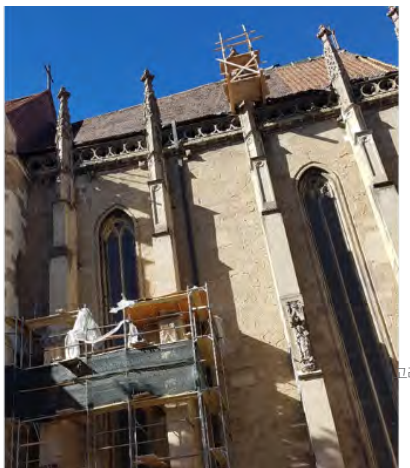
무 초라해 그냥 서 있는데, 안내자가 이 조그만 한 문으로 들어가라고 했다. 성안에 들어서자 특별히 드라큘라가 나올 것 같다는 무시무시한 구조는 아니었다. 건축이란 어느 시대든 그 시기의 양식에 따라 지어졌기 때문에 그 시대의 건축구조를 알고 보면 이해가 쉬워진다. 이 성의 특이한 점은 처음부터 궁으로 사용할 목적이 아니고, 1377년 상인들에 의해 지어져, 상인들에게 관세를 부과하던 세관의 역할도 했다고 한다. 1897년 아일랜드 작가 브램 스토커(Bram Stoker)가 소설 <드라큘라>를 쓰면서 블라드3세를 가상 모델로 삼아, 드라큘라의 배경이 되면서 흡혈귀가 사는 것처럼 유명해졌고 으스스한 곳으로 소문이 났다. 실제로 왈라키아 공국의 군주 드라큘라 백작이라 알려진 블라드 체페슈 백작은 1460년에 이 성에 잠시 머물렀다. 그의 초상화가 걸려있어 자세히 들여다보니 정말 영화에 나오는 그 드라큘라 같아 보였다. 붓으로 양쪽으로 올려다듬은 것 같은 수염은 사람의 목숨을 앗아가는 날카로운 비수와 너무나 흡사하게 보였다. 체페슈 백작은 그의 재위기간 중 적과 범죄자를 창에 꽂아 처형하면서 만찬을 즐기는 잔혹함이 있어 드라큘라라는 별명으로 불리웠다고 한다.

절벽을 깎아 절벽 위, 아주 좁은 땅에 세운 4~5층 높이의 성은 층층으로 올라가는 계단을 이용해 여러 방을 만들었고 그 방마다 그 때 살았던 사람들의 사진과 설명이 기록되어 있다. 공주의 사진, 마리 여왕의 침실, 왕자의 방, 도서관, 음악실과 같은 방들은 각층마다 작은 창문을 통해 밖을 내려다볼 수 있었다. 중간중간에 있는 복도들이 미로처럼 돌고 돌았고 아래층으로 딱 한 사람만 내려 갈 수 있는 좁은 나무 계단은 걸을 때마다 비걱거리는 소리와 밑으로 떨어질 것 같이 바닥이 흔들거렸다. 정말 드라큘라가 나타나면 90개가 넘는 계단을 무슨 수로 벗어날 수 있을까 생각하고 계단에 부착한 난관을 잡고 조심스럽게 걸었다. 그 당시 사용한 우물은 성 아래 있어 성안에서 필요한 물을 어떻게 운반했을까, 아마도 시종들은 매일 산 하나를 넘어 다니는 힘든 생활을 하지 않았을까 생각이 들었다. 루마니아 두 번째 왕이었던 페르디난도 1세도 이 성에 머물렀고 성에서 내려다본 경치는 일품이었다.

우리는 또다시 차로 산 중턱에 브라쇼브 하얀 사인(sign)이 멀리서도 선명하게 보이는 도시에 왔다. 이 도시는 13세기에 독일에서 이주한 사람들의 의해 세워졌고 헝가리 지배를 받은 트란실바니아(Transilvania) 지방의 헝가리인과 루마니아, 세 나라의 문화가 공존한 도시다. 독일 이주민들은 이 도시에서 루마니아 사람들을 살지 못하게 막았지만 18세기에 루마니아인들이 힘을 얻어 이곳의 영업권











흑색 교회(Black Church)

과 거주권을 획득했다. 19세기 이곳은 교육 문화의 중심지였다. 1차대전 이후에 루마니아 영토가 되었고 브라쇼브주의 주도이며 크론슈타트(Kronstadt)라는 독일의 옛이름도 갖고 있다. 성곽도시로서 오래 전부터 여러 지방을 잇는 교통, 상업의 중심이고 기계공업과 농업이 발달했다. 안내자는 성벽에 오르면 이 도시를 한눈에 볼 수 있는 전망이 있다고 말하고 우리에게 각자 자유시간을 주었다.

스파툴루이(Piata Sfatului) 광장에 갔다. 이 광장도 독일인에 의해 조성되었고 중앙에는 분수를 중심으로 빙 둘러 빨갛고 노랗고 회색의 멋진 건물들이 동그랗게 원을 그린 듯이 서 있었으며 광장주변에는 다양한 상점과 카페, 레스토랑이 있고 노점상과 거리 악사, 화가들이 보였다. 여행객과 이곳 주민들이 어울러 북적대는 광장을 바라보고 레스토랑에서 전통 음식을 먹었다. 옛날에 장마당으로 사용한 이 광장은 마녀사냥을 한 흔적도 남아 있었다. 광장 중앙에 시계탑이 있는 붉은 지붕의 큰 건물이 있었는데 1420년에 건축된 시청으로 쓰였던 건물로 지금은 역사박물관으로 사용하고 있다.

우리는 광장 뒷골목으로 들어가 트란실바니아 지방에서 가장 큰 건축물 합스부르크의 침략 때(1689년) 불타, 검게 그을린 흔적이 아직도 남아있는 흑색 교회(Black Church)에 갔다. 1388~1477년 독일인에 의해 세워진 이 교회는 지금도 독일계 루마니아인들이 예배를 드리는 루터파의 본산이다. 그 날은 교회문이 닫혀 들어 갈 수는 없었고 천막같이 천을 씌운 건물이 지금 수리 중임을 표시했다. 100년이 넘는 세월 동안 많은 독일의 자원봉사들이 화재 때 입은 그을음을 벗겨내고 있어서 거의 본래의 색을 찾아가고 있었다. 안내자는 4000여개의 파이프가 있는 파이프 오르간이 있고 교회 탑 안에 설치된 종은 7톤의 무게를 가지고 있으며 브라쇼브의 최고의 건축물로 이 도시의 상징이라고 했다. 이 교회 앞으로 난 마을과 집들은 독일사람들이 거주했으며 그 당시 최초로 독일 아이들을 위한 학교를 만들어 독일 아이들만 공부를 했다고 한다. 비상 도로도 별도로 만들어 천재지변이 났을 때 이용할 수 있는 길과 일상적인 길이 조성되어 있었다. 이런 일들은 그 당시에도 사회기반 구조를 잘 만들어 이용했고 자기 민족이 아닌 다른 민족을 거부하는 차별정책을 써온 것 같았다. 요즈음 독일사람들의 실용적이고 기계적인 사고가 잘 반영되는 조사에 독일인 44%가 무슬림 이민을 막아야 한다는 국민적 정서가 생각났다.

우리는 부쿠레슈티로 돌아갔다. 친절하게도 그 대형버스가 호텔 앞까지 데리다 주어 늦은 밤 편안하게 잠자리에 들어갈 수 있었다. 다음날은 국회의 사당으로 사용중인 인민궁전에 갈 예정이다.



56 회장 최화득 / 전 회장 이연상

56학번동기회 임시총회 ●●●


56학번동기회 임시총회

지난 12월 정기총회에서 새 회장으로 선출된 이종순 교우가 지난 8월 3일 갑자기 타계하셔서 회장 보선을 위한 임시총회를 8월 26일에 개최하여 최화득 동기를 후임 회장으로 선출했다.

고(故) 이종순 교우는 교통부와 해운항만청에서 20여 년간 공직 생활을 하다 항만청 운영국장을 끝으로 공직 생활을 마감하고 한국과 중국의 국교가 수립되기 이전인 1990년에 설립된 한중합작 카훼리 회사인 위동항운 유한공사 초대사장으로 취임하여 대표이사 18년, 고문 3년 등 도합 21년간 한중 간 인적 · 물적 교류 및 중국과의 국교 정상화에 커다란 공헌을 하여 우리 해운업계의 거목으로 족적을 남겼다.

후임으로 선출된 최화득 회장은 졸업 후 호남정유에서 10여 년간 근무하다 미국 유타 대학과 UCLA에 만학도로 유학한 뒤 다시 귀국해서 우리나라 온천개발 사업에 많은 업적을 남긴 교우로 심신 모두가 건강하고 부지런해서 앞으로 동기회 모임을 많이 활성화할 것으로 기대한다.

막수회 ●●●


막수회

지난 6월달에는 7명의 동기가 참여했고 7월에는 폭염과 장마로 모임을 취소했고 8월에는 회장 보선을 위한 임시총회를 개최한 관계로 두 달간 월례회를 갖지 못했다. 9월 30일에 늘 모이는 장소인 춘천 막국수에서 최화득 회장 취임 이후 첫 번째 월례회를 개최했는데 금년 들어 가장 많은 9명의 동기들이 참석했다. 역시 최화득 회장의 인화력과 교우 간 좋은 유대관계로 많은 회원이 참석하였고 앞으로도 더 많은 동기가 참여하기를 기대한다.

61 총무 이채영

초암회(서초동 모임) ●●●


초암회

서초동에 거주하던 동기들이 연초에 연회비를 내고 부부 동반으로 만나던 모임으로 현재는 배우자 없이 홀수달 셋째 화요일 양재역 인근 식당에서 모이고 있다. 회원들의 고령화와 주거지를 지방으로 이전한 탓에 회원 수가 반으로 줄어들어 10여 명이 만나고 있다. 회장은 매년 순환하며 1년씩 맡고 있으며 금년 회장은 최창규 회원이 맡았다.

학번별 소식

광암회(강남 모임) ●●●

종로구와 중구 지역에 직장을 갖고있던 회원들이 광화문에서 만나던 모임으로 후에 강남의 강호회와 통합하여 가장 큰 소모임으로 한때는 30명이 넘었다. 현재는 15명 전후가 홀수달 둘째 화요일 사당동 참배나무골 오리집에서 오찬 회동을 하고 있다. 이채영 회장은 61동기회 총무 역할도 맡아 동기들의 화합과 친목 강화에 힘쓰고 있다. 또한 이 회장은 1963 고대불교학생회 창립 회장과 한국대학생불교연합회 및 동문회 창립 멤버로서 불교의 전법 활동도 활발하게 하고 있다.



이채영 광암회장의 활동

이월회(양재동 모임) ●●●

골프를 함께 치며 역삼동 아바이순대집에서 만남을 갖던 회원들이 짝수달 둘째 월요일에 양재동 고깃집에서 오찬을 함께하며 우의를 다지고 있다. 왕년에 대기업에서 CEO를 하던 회원들답게 불시에 번개팅으로 별식을 함께하기도 하며 후식은 카페에서 티타임으로 마무리하고 있다. 성영일 회장을 중심으로 12명의 회원이 동참하고 있다.



이월회

도암회(여의도 모임) ●●●

여의도 금융가에 직장을 갖고있던 동기들이 모여 만든 모임으로, 김 실 회장을 중심으로 매월 셋째 금요일 오찬회를 갖고 있다. 손윤기 동기는 여의도 직장을 떠나 프랑스에서 사업을 하며 프랑스 한인경제인회 회장을 지내는 등 활발히 활동하다가 귀국한 후에는 기독교 선교 활동과 고대교우회 월례강좌 부회장으로 활동하고 있다. 손 동기는 부친에 이어 지난 10여 년간 서예 작품 활동에 매진하여 한국서예협회, 서화작가협회, 동양서예협회 초대작가, 대한민국 서예 문인화 대전 등의 초대작가로 활동하고 있다. 9월 28일부터 10월 8일까지 고양시 일산 동구청 2층의 가온 갤러리에서 서예전을 열었다.



손윤기 회원의 서예전에서

청춘대학(브라보 실버모임) ●●●

노후를 멋지고 즐겁게 보내자는 회원들이 모여 국내외 여행과 미식 순례를 함께하며 매월 그때그때 날짜를 정해 만남을 갖고 있다. 금년에는 지병이 있는 회원의 동참이 어려운 실정을 감안하여 국내여행 위주로 여행하고 해외여행은 개별적으로 하기로 했다. 11월에는 철원지역의 명승지를 1박 2일간 여행하기로 결정했다.



청춘대학

아름다운 퇴장 ●●●



조승자, 전춘옥 동기를 기리며

61학번은 타 학번에 비해 동기들이 제일 많은 편이다. 그러다 보니 각 방면에서 성공하여 교우회에 개인 장학금을 많이 기부하고 있고, 발전기금이나 건축기금 등 기부에도 적극 동참하고 있다. 이에 더해 지난해부터 유명을 달리한 동기들의 이름으로 장학기금을 기부하는 행렬이 이어지고 있다. 고(故) 조승자 동기의 배우자가 1억 원을 장학금으로 기부한데 이어, 고(故) 전춘옥 동기의 유가족이 1억 원 장학금 기부 릴레이가 이루어지고 있다. 모교 경영대학에서는 기부자 명의의 스터디룸을 만들어 기부자를 기억하도록 하여, 후배들의 학구열을 고취시키고있다.

62 회장 김광한 / 총무 한상욱 / 감사 송기현

62학번동기회 가을 나들이 ●●●


맑은날의 가을 나들이

궂은 날씨를 예상했는데 막상 10월 15일 경영대학 62학번 가을 나들이 날 아침에는 우리를 위한 듯, 쾌청한 날씨였다. 동기생들과 동기생 부인이 지하철 교대역 앞에서 우등관광버스를 타고 설레는 마음을 안고 출발했으며 동천 환승역에서 기다리는 동기를 태우고 목적지를 향했다. 버스 내에서 회장의 인사 말씀과 안기정 고문님의 '조선 후기 천주교 전래' 설명을 듣고 안성 마리내 성지에 도착해 기념사진을 찍은 뒤 가을의 맑은 공기를 마시며 산책했다. 산책을 마치고 안성 축협 프라자에서 한우로 점심 식사를 하면서 환담을 나눈 뒤, 안성 금광저수지로 가서 하늘 전망대를 관람했다. 카페앤비노에서 디저트를 즐기고 야외에서 노래를 부르며 이날 하루를 만끽했다. 해가 저물고 저녁 시간이 되어 고기박사 냉면집에서 식사하고 저녁 8시에 교대역에 도착해 다음을 기약하며 여행을 마쳤다.

64 회장 박재진 / 사무총장 이석훈 / 감사 김인철

7월 백수회 모임 (백수회장 : 지동직, 수요등산대장 : 유명식) ●●●


양재 시민의 숲에서

- 일시 : 2026년 7월 1일(수)
- 코스 : 양재 시민의 숲
- 참가자 : 박채길, 신준철, 유명식, 유성준, 이경희, 이석훈, 이용규, 최종욱, (김덕명, 지동직) (10명)

무더위가 한창이라 근방의 평지를 걷자는 의견에 양재 시민의 숲에 가기로 했다. 길가에 꽃들이 흐드러지게 만발해 있는 하천길에서 큰 목소리로 떠들고 웃고… 월드컵 경기에서 감독이 잘못했느

니, 재료가 별볼일 없는데 음식이 제대로 맛을 내겠느냐는 등 토론이 툭 터진 숲속에서 목소리만 높아져 가는 노익장들은 입으로 스트레스를 풀었다. 살다 보면 수지 맞는 경우도 있는데 이날이 그런 날이었다. 이석훈 총장이 평소 단골로 다니는 강남 논현동 '원강'이라는 나주곰탕, 꽃등심 전문점에서 해마다 단골 손님들을 위해 창업기념일에 1인 31,000원 하는 불고기를 대접하는 데, 때맞춰 식사 때 참석하기로 한 김덕명, 지동직까지 동기 10명이 융숭한 접대를 받았다. 주인에게 복 많이 받아 부자되라고 감사 표시를 했더니 막걸리와 무등산 수박으로 후한 서비스를 받는 그야말로 장땡을 모두 잡은 경우가 생겼다. 식사 후 나오면서 신준철 동기가 아이스크림이 곁들여진 아포카토 커피를 디저트로 사니 더 화기애애해졌다. 그래서 백수회는 불참하면 손해본다.

탁족회 모임 ●●●

· 일시 : 2026년 8월 26일(수)
· 코스 : 청계산 계곡
· 참가자 : 박명익, 박채길, 신준철, 유명식, 유성준, 이경희, 이석훈, 정원교, 최종욱 (9명)



청계산 계곡에서

여름도 그 맹위를 떨치는 기간이 얼마 남지 않아서 백수회도 탁족회를 해마다 개최하는데 가까운 청계산에서 만나자는 약속에 9명이 참가해서 흐르는 물에 발을 담그고 박명익이 준비해 온 족발에 막걸리를 한 잔 들이켰다. 물이 차가워 발이 시원하니 한숨 낮잠이라도 자고 싶을 정도였다. 모르긴 몰라도 옛 선비나 어릴 때 시골 개천에서 피라미, 붕어를 잡고 놀던 때도 지금보다 더 시원하지는 않았을 것이다. 숲이 우거진 지금이 더 그늘도 많아서 좋아진 셈이다. 점심으로 먹은 순두부와 꽁보리밥은 별미였는데 옛날에는 가난한 사람들이 즐겼던 음식이 요즘은 건강식이 됐고 가격도 비싸진 것을 보니 세상은 끊임없이 변화한다는 것을 실감케 한다.

8월 등산회 모임 (등산회장 : 홍현묵, 등산대장 : 고병선) ●●●

· 일시 : 2026년 8월 29일(토)
· 코스 : 우면산 무장애길
· 참가자 : 강동식, 강용민, 고병선, 권영기, 김귀분, 김광수, 김덕명, 김동훈, 김상규, 박명익, 박채길, 신준철, 유성준, 이경희, 이석훈, 이용규, 정원교, 조재복, 조증래, 최종욱, 홍현묵, (이강훈, 지동직) (23명)



우면산 무장애길에서

8월의 무더위가 꺾이는 월말을 앞두고 등산 회원들이 남부 터미널에 모여서 무장애숲길을 걸었다. 건강이 좋아진 강용민 회장이 걷기를 완주했고, 오랜만에 참석한 김상규, 암 투병을 끝낸 조증래, 여전히 유일한 여학생 김귀분 교장 등이 참석하는 등 더욱 빛나는 산행이 됐다. 매월 만나는 동기들이지만 만나면 언제나 반갑고 담소를 나누고 싶은 고경64 동기들은 오늘도 서로에게 행복의 씨앗을 뿌려주고 기쁨을 나눠 가졌다. 식당에서 기다리는 이강훈, 지동직까지 23명은 전과 같이 막걸리에 주꾸미, 고등어구이, 피자를 곁들인 점심을 먹으면서 나누는 이야기가 모임에 활력소를 불어넣어 주었다. 또 만나자고 기약하며 아쉽게 모임을 마쳤다.

64학번 입학 동기회 모임 ●●●

- 일시 : 2026년 9월 8일(화)
- 코스 : 과천대공원
- 참가자 : 강동식, 고병선, 권영기, 김광수, 박명익, 박채길, 유명식, 유성준, 이경희, 이석훈, 정원교, 최종욱 (12명)



과천대공원에서

1964년 입학했던 동기들은 애기능에서 교양학부 과정을 거치면서 전공과 상관없이 같이 어울릴 기회를 많이 가졌다. 데모도 많이 했고 휴교령까지 내려 온갖 추억과 경험을 겪으며 그야말로 다사다난한 학창 시절을 보낸 우리는 매월 둘째 화요일 대공원에서 만나 송대용 회장의 맨손체조로 모임을 시작해 대공원에 들어가 걷고 송 회장이 마련해 온 두부김치찜과 막걸리에 과자 등을 먹으면서 지난 이야기를 나눴다. 오랜만에 만난 동기들과 해후는 재회의 기쁨과 과거를 추회(追懷) 하는 시간이 됐다. 점심으로 한식 뷔페를 먹으면서도 몇 시간을 떠드는 노익장 중 경영64는 다수가 참석하는데 이번에도 12명이 모여서 동기들과 어울렸다.

석우회 모임 (회장 : 신준철) ●●●

- 일시 : 2026년 9월 30일(수)
- 장소 : 압구정 오대산 식당
- 참가자 : 강동식, 김욱희, 김윤호, 박일구, 박채길, 박태원, 송철호, 신준철, 윤규성, 이강훈, 이태경, 이항선, 진천용 (13명)
- 미참석자 : 김선욱, 김원태, 정철현 (3명)



압구정 식당에서

1967년 12월 어느날 졸업을 앞두고 우리는 일류관 식당에 모여서 작은 모임을 만들어서 평생 동안 돌같이 우정을 나누는 친구가 되자고 석우회(石友會)로 명명하고 27명이 첫 만남을 시작한지 59년째가 됐다. 그동안 매월 만나면서 부부 모임이 자연스레 이어졌고 아이들과 봄, 여름, 가을 철 따라 버스를 대절하여 놀러 다니던 시절도 끝나고 이제는 사철에 한 번씩 만나 우정을 나누고 있다. 세월이 흐르면서 모임을 탈퇴한 동기와 작고한 동기들로 이제는 16명이 남았고 오늘도 13명이 참석했다. 돌처럼 굳은 언약을 지키고 끝날 줄 모르는 정담을 나누면서 막걸리, 맥주, 소주를 마시며 9월의 마지막 날을 즐겁게 보냈다.

66 회장 김용년 / 총무 정 발 / 감사 박민규

3월회 (회장: 최문봉) ●●●



3월회

· 날짜 : 9월 21일(월)
· 장소 : 솔라고 호텔 2층 아미고 뷔페식당

이번 3월회 모임도 거의 단골이 된 명동 솔라고 호텔의 2층 뷔페식당으로 모임 장소를 정했다. 누군가 추천하는 메뉴를 참작하면 우선 집에서나 외식할때 접하지 않은 메뉴를 첫 접시에 시도하고 추가로 좋아하는 메뉴를 진행해보는 것이 이상적이라고 한다. 물론 고급 뷔페식당에 비해 메뉴가 많이 부족하지만 우리한테는 小食이 좋으니까 그럭저럭 자주 이용하게 된다. 지하철 3, 4호선 7번 출구에서 5분 정도 거리에 있다. 금일 참석자는 15명 정도다.(참석자 이름 생략)

虎球회(회장: 신경조, 총무 : 김웅한) ●●●



호구회

· 날짜 : 10월 5일(월)
· 장소 : 양재당구장(양재역 5번, 8번 출구)

금년 4월부터 시작된 CHAMPION SERIES의 虎球회 결승리그 진출자는 염수열, 신경조, 한중희, 이상익이다. 그 전적은 염수열 2승, 한중희 2승 1패, 신경조 1패, 이상익 2패이며, 잔여 경기는 염수열 vs 신경조, 신경조 vs 이상익이다. 虎球회의 年末모임은 11월 30일로 예정하고 있으며(12월은 연말이라 바쁘므로) 봉피양 양재점에서 개최할 것이다. 10월 5일 참석자는 10명이며, 신경조 회장, 염수열, 한중희, 이병익, 김창호, 이연상, 이상익, 신진철, 조규용, 김웅한 총무다.

이수회 (회장 : 남효극) ●●●



이수회

· 날짜 : 9월 9일(수)
· 코스 : 남산둘레길

제123회 이수회는 늘 다니는 남산둘레길을 선정했다. 점심 식사는 '산정'에서 하기로 했으며, 신경조는 잘못된 정보로 명동역까지 왔다가 그냥 귀가하는 해프닝이 있어 모두를 웃게 했다. 그날 참석자는 11명이며 그 명단은 다음과 같다. 김웅한, 김원율, 박용혁, 박주홍, 신진철, 이병익, 이철규, 정성수, 정순달, 최문봉, 남효극이다.

이금회 (회장 : 이철규) ●●●

- 날짜 : 9월 11일(금)
- 장소 : 전주옛날집(양재역 2번출구)



이금회

이금회는 고대 상대 출신 중 자칭타칭 금융인들 모임이며, 그날은 조규용이 모임을 지원했다. 참석자는 김용년, 김웅한, 김원율, 박주홍, 오의수, 이연상, 이철규, 조규용이며 불참자는 김장옥, 박삼령, 박민규, 박종훈, 한중희, 이판철이다.

사금회 (회장 : 최문봉) ●●●

- 날짜 : 9월 30일(금)
- 장소 : 북한산 계곡(구파발역 2번출구)



사금회

올해 가을 첫 트레킹으로 북한산 계곡을 다녀왔다. 이번에는 송추계곡에 있는 송추폭포까지 함께 다녀왔다. 구파발역에서 30분 정도 버스타고 송추계곡 입구에 내리면 된다. 여름철에는 송추계곡이 가족들 물놀이가 아주 인기 있는 곳이지만 가을철에도 계곡 주변 정리가 잘 되어서 맑은 산 공기와 새소리, 무리 없는 코스로 당일 트레킹을 하기엔 아주 좋았다. 걸으면서 북한산 주변 경치도 보고 맛있는 점심을 먹고 돌아왔다. 그날 참석자는 7명이며 정성수, 이병익, 염수열, 이상익, 정순달, 박창덕, 최문봉이다.

72 회장 남덕우 / 사무총장 장석산

72학번 소식 ●●●



하계 모임

우리 경영 72동기회는 모교에 대한 사랑과 결집력이 대단하다. 우리가 고려대학교에 입학한 1972년도의 '72' 숫자를 기념하여 매년 7월 2일에는 하계 모임을 청담동 청담영양센터에서 모인다. 치맥파티와 함께 삼계탕을 먹으면서 뜨거운 여름에 약해진 기력을 삼계탕으로 보양하면서 동기간의 우의를 다진다. 금년에도 47명의 동기들이 모여 따끈따끈한 치킨을 안주 삼아 시원한 맥주로 목을 축이면서 언제 들어도 신나는 옛날 학창 시절 호기 가득한 이야기와 재미있는 우스갯소리로 이날만큼은 우리 동기들을 다시 20대의 젊은 청춘으로 돌려놓았다.

이제는 마시는 주류 소비량이 예전과 같지 않지만 그래도 우리 나이에 비해서는 많은 편이라고 할 수 있겠다. 많은 동기들이 건강을 위해 과음을 자제하고 주량을 절제하는 모습이 예전과는 많이 달라 좀 어색하게도 보이지만 이제는 자연스럽게 보인다. 강영길 동기가 집에서 정성스럽게 양조하여 가져온 향기가 좋은 블루베리 술 12병을 가져왔으나, 다 마시지 못하고 몇 병은 남았을 정도다.

고대생들이 모이면 빠질 수 없는 이야기, 바로 고연전 이야기다. 70년대에는 고대 전성기였다. 1972년과 1975년은 각각 계엄령과 고려대 축구부 버스 사고로 고연전이 취소되었으나 1973년 고연전은 4승 1패, 그리고 1974년은 4승 1무로 고려대의 압도적인 우세였다. 당시 유명했던 농구 주전선수이었던 박완수 동기가 있다. 박완수 동기는 지금도 식을 줄 모르는 농구 사랑으로 금년도 10월 2일 고연전 농구 게임에 72동기 20명과 함께 열렬히 응원전에 참가하여 작년에 이어 고려대가 연세대를 69:53 누르고 대승하는데 일조했다.

72경영 산악회는 매월 첫째 토요일마다 만나 산행을 한다. 산악회를 이끄는 이원의 회장은 지칠 줄 모르는 체력으로 전국 방방곡곡 산을 오르내리는 철로 된 무릎을 갖고 있는 'Iron Man'이다. 70이 넘으면 다들 무릎이 신통치 않은 게 당연한데 이원의 회장만큼은 특출하다. 매월 모이는 산행은 약 10여명이 참가한다. 그리고 매월 당구 모임도 있다. 유동면 회장도 열심히 회원들을 소집하여 당구 시합을 갖는다. 모두 승부에는 양보가 없다. 그러나 시합이 끝나면 결과는 금방 잊어버리고 먹고 마시며 시끄럽게 이야기하면서 우의를 다진다. 이것이 우리 고대인의 장점이다.

74 경영회장 우갑준 / 사무총장 조형용

경영74동기회 정기총회 ●●●

- 날짜 : 2026년 7월 4일(토)
- 참석자 : 강기철, 김경식, 김병만, 김세민, 김양권, 김지섭, 류상철, 민장환, 박용운, 손정윤, 이문세, 이민호, 이준학, 임유순, 장재천, 장항덕, 정 영, 조군환, 조길래, 조철래, 조형용, 진영삼, 최동필, 홍석선 (총 24명)



동기회 정기총회

작년 구자형 사무총장 별세 후, 조형용 사무총장 취임하고 나서 첫 번째 총회에 스물네 명의 동기가 참석했다. 5년 전 오늘이 1974년 전체 수석 입학한 고(故) 이광재 동기의 5주기로 고인이 된 동기들을 추모하는 묵념과 기도로 모임을 시작했다. 결혼 40주년으로 스페인 여행 중인 우갑준 회장 대신 정 영 제1수석의 인사말로 본격적인 총회가 열리고 동기회 소모임 안내와 사무총장 결산보고, 전임 회장들 활동 사항 추억 공유, 향후 활동 계획과 오랜만에 참석한 동기들의 근황을 듣고 전임 조철래 회장의 건배사로 배수룡(경영74) 동기의 시집 '새격길 따라' 서문에 나오는 글로 마무리했다. 2차, 3차로 당구와 카페에서 즐겁고 행복한 시간을 보냈다.

경영74 동기 부친상 추모 ●●●

- 날짜 : 2026년 7월 11일(토)

원래 당구 모임을 하기로 했던 날이었으나 손정윤 동기의 부친상이라는 안타까운 소식을 접하고, 그날 모이기로 한 동기들 모두 발걸음을 돌려 손정윤 동기의 슬픔을 함께 나누기 위해 일원동에 있는 삼성의료원 장례식장에 조문을 다녀왔다.



손정윤 동기 부친상 조문

76 회장 장영린 / 총무 김덕만

경영76산우회, 7~9월 서울둘레길 3개 코스 성황리 완주 ●●●

경영76산우회(회장 손봉원)가 지난 상반기의 뜨거운 호응에 이어, 7월부터 9월까지 3개월간 진행된 3분기 정기산행을 성황리에 마무리하며 한층 더 깊어지고 끈끈한 동기애를 증명했다.



산우회원들

이번 3분기 산행은 유난히도 혹독하고 기승을 부렸던 폭염 속에서 치러졌다. 하지만 매회 최소 7명에서 최대 9명에 이르는 정예 회원들이 단 한 번도 빠짐없이 꾸준히 참여해, 서울둘레길의 주요 명품 코스들을 차례로 완주하는 기염을 토했다.

지난 7월 정기모임의 무대는 '서울둘레길 6코스(고덕산 코스)'였다. 한강 변을 따라 시원하게 펼쳐지는 역사적인 숨결과 고덕산이 품은 아늑한 숲길을 걸으며, 동기들은 이마에 흐르는 땀방울 속에서도 서로의 안부를 묻고 그간 밀린 이야기를 나누며 발걸음을 옮겼다. 특히 이날 산행에서는 요리 솜씨가 웬만한 전문 레스토랑 셰프 못지않은 재주꾼 회원이 동기들을 위해 '우뭇가사리 콩물 냉차'를 정성껏 손수 준비해 와 깊은 감동을 선사했다. 찌는 듯한 가마솥 더위 속에서 들이킨 고소하고 시원한 콩물 냉차 한 모금은 동기들의 갈증을 단숨에 해소해 준 그야말로 산속의 사막에서 만난 최고의 오아시스였다. 이처럼 정성 어린 따뜻한 정이 더해진 7월의 산행은 짙어가는 초록의 숲이 안겨주는 청량함 속에서 진행되었고, 바쁜 일상과 무더위에 지친 동기들에게 소중한 건강 에너지와 삶의 활력을 듬뿍 불어넣어 준 자리가 되었다.

이어지는 8월, 한여름 무더위가 정점에 달했던 시기에는 '서울둘레길 3코스(불암산 코스)' 완주라는 당찬 도전에 나섰다. 하늘을 살포시 품어 안은 포근한 불암산 숲길을 지나며 동기들은 서로에게 든든한 버팀목이자 지지대가 되어줬다. 폭염으로 숨이 턱까지 차오르고 지칠 법도 한 순간마다 서로 건네준 시원한 생수 한 모금, 각자 배낭에서 정성스레 꺼낸 신선한 과일과 주전부리를 나누어 먹으며 주고받은 따뜻한 격려의 말 한마디는, 아득한 대학 시절 청춘의 강의실에서 나누었던 우정 그 이상으로 값지고 빛났다. 단 한 명의 낙오자도 없이 서로 끌어주고 뒤에서 밀어주며 완주선을 통과한 순간, 동기들의 얼굴에는 땀방울과 함께 가슴 뿌듯한 성취감과 기쁨의 미소가 가득 번져나갔다.

가을의 문턱에 들어선 9월에는 '서울둘레길 13코스(안양천 코스)'를 정복하며 3개월간 걸어온 대장정에 화려한 정점을 찍었다. 구일역에서 출발해 석수역으로 이어지는 안양천 상류의 평탄하고 시원하게 탁 트인 하천길을 따라 걸으며, 성큼 다가온 가을의 그윽한 정취와 바람을 온몸으로 만끽했다.

산우회 회원들은 푸른 자연의 숨결 속에서 깊은 호흡을 나누며 그동안 쌓였던 스트레스를 싹 날려 보냈다. 산행 후 이어진 정겨운 뒤풀이 자리에서는 지난 3개월간의 뜨거웠던 여정을 함께 돌아보며, 앞으로 이어질 산행에 대한 기대와 설렘으로 웃음꽃을 피웠다. 자연을 벗 삼아 정직하게 걷는 경영76산우회의 발걸음은 단순한 건강관리를 넘어, 세월의 흐름 속에서도 결코 변하지 않는 '동기애'라는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열매를 맺어가고 있다. 다가오는 10월 정기모임에서는 또 어떤 아름다운 단풍 풍경과 따뜻한 이야기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을지, 산우회 동기들의 가슴은 벌써부터 기분 좋게 설레고 있다.

77 회장 김병채 / 총무 김인섭

7월 동기회 모임 ●●●

수년 전부터 매년 7월 7일 오후 7시 도곡동에 있는 광릉옥에서 이오규 동기가 제안해 모임을 유지하고 있으며 늘 모임 비용을 지원해왔다. 금년부터는 김병채 회장과 둘이서 지원하기로 해 즐거운 저녁 시간을 보내고 있다. 이날은 1년 중 반 이상을 해외에서 지내고 있는 권호진 동기가 오랜만에 참석해 앞으로 자주 참석하겠다고 의지를 밝혔다.



7월 동기회 모임

9월 골프모임 ●●●

9월 9일 충주시 노은면 동촌골프장에서의 두수골(두번째 수요일 골프모임) 모임을 가졌다. 이날은 20명이 참가했고, 10월 14일 모임에는 24명이 참가 예정인데 소모임 중에서 가장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다. 이를 위해 전돈희 골프회장과 이원우 총무가 물심양면으로 노력하고 있다. 토론토에 살고 있는 김진석 동기가 어렵게 시간을 내 조인했다.



9월 골프모임

79 회장 이상현 / 총무 오성호

KUCC 연희동 거장들의 공간을 섭렵하는 전통문화 투어 ●●●

- 일시 : 2026년 6월 19일(금)
- 장소 : 박서보재단과 황창배미술관



이경희 작가와 함께

1) 박서보 재단에서 : 단색화의 거장 박서보 화백이 실제로 머물며 작업하던 생활, 전시 공간과 작업실이다. 한 예술가의 삶이 고스란히 남아 있는 거장의 작품들을 음미했다. 일제시대에 태어나서 빈곤과 6.25 전쟁을 경험하여 어둠과 고난에서 나오는 내면적 욕망을 절제하고 비움으로 승화시키기 위해서 한국 미술계를 단색화의 시대로 이끌어낸 주역이며, 초기, 중기, 후기의 묘법 변화를 거치면서 세계적인 거장으로서의 위치를 확고히 하고 있다. 사후에는 작품 전체를 박서보재단에 기부하여 1000여 점이 넘는 작품들이 수장고에 보관, 박물관을 건립중에 있다.

2) 황창배미술관에서 전시 중인 유명 작가, 이경희의 작품관람 : '우연적 필연'이라는 개념으로 작업한 이경희 작가의 작품을 감상했다.

삶의 흔적을 색과 선으로 바람과 물과 생명의 모습을 표현하여 내면의 무의식(억압, 분노, 기쁨)을 승화시키는 것으로 표출하며 우연의 필연으로 귀결되는 모습을 나타내고자 했다고 한다. 한지에 먹물이 번지는 우연적인 흔적을 발견하여, 목판화를 이용한 에고르기법과 꼴라쥬 아트를 접목하여 붙이는 작품으로 실험 예술로서 각광을 받는 작품들이다. (이경희 작가는 이성훈 동기의 친동생임)

이경희 작가도 참석한 뒤풀이는 연희동의 '조은집'에서 한정식으로 나누며 즐겁고 화기애애한 시간이었다. 김정태는 이경희 작가의 작품도 한 점 구입하여 소장키로 했다. 오후부터 내리는 빗방울이 무더위를 식혀주어 여러모로 감사하고 즐거움이 충만한 하루였다.

79친구당 강릉 원정 반기결산 당구대회 ●●●

- 일시 : 2026년 6월 21일(일) ~ 23일(화)
- 장소 : 강릉 당구해커



대회를 앞두고

79친구당(고대경영79당구회)에서는 2박3일 일정으로 강릉에서 반기결산 당구대회를 가졌다. 이번 대회는 LP25사(대표:이성훈)의 후원으로 진행했다. 총 17명의 회원들이 4대의 차량에 분승해 북강릉의 사천면 진리항에 있는 숙소에서 여장을 풀고 첫날은 저녁 식사한 뒤 해변을 거닐거나 휴식을 취했다. 다음날은 숙소 근처에서 아침 식사하고 당구장으로 이동해 치열하게 리그전 대회를 펼쳤다. 예선전을 통과해서 8명으로 압축되고, 4강전으로 압축되는 동안 즐거움과 환희와 석패의 순간들이 나뉠 때까지 긴장된 마음으로 경기에 임했다. 최종적으로 우승, 준우승, 3위의 성적을 확인하며 대단원의 막을 내렸다. (우승:이성훈, 준우승:이일환, 3위:조성진, 민경섭) 대회가 끝난 뒤 강릉 시내의 '회바라기' 횟집으로 이동해 대회 시상과 더불어 각종 주류, 음식으로 축하와 격려가 난무하는 회식 자리를 가졌다. 이은 2차 뒤풀이는 7080 라이브 카페에서 일부 회원들이 노래와 춤으로 객기를 발산하고 나름의 자유와 행복을 함께 나누며 강릉의 밤을 만끽했다. 마지막 날 아침 식사를 마치고 경포대를 산책하다가 맑게 갠 날씨에 따가운 햇살을 피하려고 '테라로사'라는 카페에서 커피 한 잔의 여유를 가진 다음 귀경길에 올랐다.

고경79산우회 6월 정기산행 ●●●

- 일시 : 2026년 6월 26일(금)
- 장소 : 치악산(향로봉, 남대봉, 상원사)



치악산에서

고경79산우회 멤버 16명이 함께 치악산행을 했다. 이른 아침 교대역 근처에서 무릎에 좋은 도가니탕을 먹고 출발, 안흥에서 막걸리를 사느라 쉬면서 안흥찐빵 맛보고 치악산의 부곡탐방센터에 도착했다. 간단히 코스를 확인한 후 비단길 같은 계곡 길을 따라 올라 부곡폭포와 샘터를 지나고 곧은재까지 4.1km를 올랐다. 거기서부터 능선길을 따라 향로봉(1043m), 치마바위봉을 지나 남대봉(1181m)까지 5.5km, 향로봉 아래에서 막걸리와 문어숙회, 오징어무침 등으로 점심을 해결하고 다시 꾸준히 걸었다. 남대봉을 지나 우리나라 사찰 중에서 가장 높은 곳에 위치한다는 상원사(해발 1100m)를 둘러보고 하산하다가 깨끗한 물이 흐르는 곳에서 간단히 탁족을 했다. 성남탐방지원센터까지 5.2km의 산행을 마무리했다. 은혜 갚은 꿩의 전설이 스며있는 치악산. 치를 떨며 악악거리며 오른다는 치악산. 해발고도 국내 최고의 상원사. 아름다운 비단길 같은 코스라서 산길은 크게 험하지 않았지만 하산길이 무리가 되

는 구간이 있었다. 그래도 5시간 반, 약 16km의 산행을 큰 무리 없이 완주했다. 16명 중 5명은 싸리치옛길을 걸으며 트레킹하고 11명은 산행하며 즐거운 시간을 보냈다. 뒤풀이는 봉화산 유황오리, 원주의 치악산 막걸리와 어울리는 유황오리진흙구이와 맛깔스런 반찬의 식감에 땀 흘린 만큼의 보상이 주어지는 깔끔한 하루였다.

KUFC79 가족 체육대회 ●●●

· 일시 : 2026년 6월 27일(토)
· 장소 : 경기도 고양시 소재 훼릭스 구장



함께한 가족들

한여름 뜨거운 햇빛 아래, 회원들과 가족 45명이 모였다. 4개 조로 나누어 각종 오락과 족구, 축구를 하며 조별 대항전을 펼쳤는데, 족구 결승전은 정말 손에 땀을 쥐게 했다. 오락 및 축구 경기에서도 함께 웃고 일으켜 세워주며 뛰노는 참가자들의 만면에 사랑과 배려가 가득했다. 이날은 다시 한번 우리 KUFC79가 '전세계 최고의 동문 가족 모임'이라는 자부심을 확인시켜 주었고, 함께한 가족들에게 또 다른 잊지 못할 추억으로 남는 시간이 되었을 것이다. 비록 경기의 승패가 있었지만, 진정한 우승은 함께 나눈 웃음과 격려 그리고 세대를 초월한 사랑과 연대감이었지 않았을까. 거의 반세기 가깝게 만나온 우리 KUFC79 동기들 그리고 함께 자라난 자녀들과 손주들까지… 이렇게 한곳에 모여 건강하고 행복하게 어울린 시간이 얼마나 귀한지 모른다. 앞으로 우리가 활발히 뛰지는 못할지라도 앞으로 손주들이 주전으로 뛸 날을 그려본다. 경기장에서 뛰어난 활약을 펼친 모든 선수들, 열심히 하고 게임을 함께 즐기며 응원해 준 부인들과 자녀, 손주들, 그리고 축하공연을 펼쳐준 김성태와 행사를 기록하고 가족사진도 찍어준 안희준 작가에게 진심으로 감사드린다. 다음 모임에도 우리가 함께할 수 있기를, 그리고 더욱 많은 웃음과 건강이 모두에게 가득하기를 기원한다.

7월 정기모임 ●●●

· 일시 : 2026년 7월 6일(월)
· 장소 : 서초동 꽃담



7월 정기모임

7월 정기모임을 꽃담에서 가졌다. 장마의 후텁지근한 날씨에도 많은 동기들이 어울리는 자리가 됐다. 이 모임을 위해 지난 5월에 아들을 결혼시킨 황보평이 동기들의 축하에 감사하여 60년 된 귀한 술(마오타이, 귀주)을 두 병을 들고 와 한잔씩을 나누며 모임을 시작했다. 이상현 회장이 축하와 축복의 메세지로 분위기를 한창 돋웠고 동기들은 큰 박수로 화답하며 건배했다. 이어서 '오리 요리에 진심'인 주인장의 서빙에 맞추어 막걸리를 곁들여 몇 순배를 돌면서 만남과 대화의 즐거움에 빠져 한참을 떠들며 서로의 근황과 추억 되새기기에 바빴다. 식사를 마무리하고 오성호 사무총장의 사회로 모임의 공식 행사가 진행됐다. 이상현 회장은 "우리 동기들이 건강하고 행복한 여름나기를 기원하면서 시원하게! 팔팔하게! 끈끈하게! 위하여~!"를 외치며 좌중의 박수를 받았다. 다음엔 KUPGA의 양희창 골프회장이 나와서 지난 5월 정기 대회와 여름 · 가을의 골프행사가 있음을 알렸으며 장덕윤 산우회장은 4월의 중국 황산 트레킹의 무산된 얘기와 곧있을 조무락계곡 여름 산행과 가을의 영남알프스 1박2일 종주 산행에 대해 설명했다. 친구당의 이성훈 당구회장은 지난 호당회(고대 전체 당구모임) 대회에서 우승한 소감

과 6월 반기결산 강릉 원정대회 경과와 향후 해외 원정대회를 기획하고 있음을 밝혔다. KUFC79의 서종산 축구회장은 부부 동반 봄꽃 나들이, 6월에 있었던 가족 체육대회에 대한 보고, 가을에 있을 이효석의 봉평메밀꽃축제에 대해 모임을 예고했다. KUCC79의 진용주 문화회장은 5월엔 성북동 한양 도성, 한용운의 심우장, 길상사와 송상호 부친의 조각작품 감상, 6월엔 박서보 작가와 이경희(이성훈 동기의 여동생) 작가의 작품감상 등의 활동을 보고했고 7월의 '늘근도둑이야기' 연극 관람을 예고했다. 최근에 신용보증기금 이사장직을 퇴임한 최원목의 참석에 수고와 봉사에 감사하며 더불어 건강을 기원하는 박수를 보냈다. 모처럼 프로야구 한화의 투수코치로 활동하는 양상문의 참석에 박수로 환영하며 다리 수술의 경과가 빨리 나아지기를 두 손 모아 기원했다. 시인인 목계 장민기는 나희덕 시인의 '속리산에서'를 암송하며 좌중에게 웃음과 즐거움을 선사했다. 마지막으로 문화회에서는 찾아뵈었던 고려대학교 수학의 선구자였던 송상호의 모친 사공정숙 교수님의 건강을 빌었다. 안희준 작가의 멋진 단체 사진 촬영으로 즐겁게 떠들고 웃고 즐기던 이날 모임을 마무리했다.

KUCC 대학로 연극관람(늘근도둑이야기) ●●●



공연후 밖에서

· 일시 : 2026년 7월 24일(금)
· 장소 : 대학로 아트포레스트

뜨거운 열기와 연속되는 장마의 영향으로 피곤에 지친 삶의 한가운데에서 경영KUCC79 회원 19명은 동숭동의 조그만 극장에서 '늘근도둑이야기'를 관람했다. 몇십 년째 공연하고 있는 이 연극은 대학로의 스테디셀러 시사 풍자 코미디 연극으로서 대통령 취임 특사로 풀려난 두 도둑(더 늙은 도둑과 덜 늙은 도둑)이 고위층 집에 잠입해서 물건을 훔치기 전의 대화가 주를 이루는 이야기로 구성되어 있었다. 금고는 털지 못하고 수사관한테 잡혀 취조를 받으면서도 시사 · 이슈를 꼬집어낸 해학과 위트, 풍자로 풀어내고 애드리브를 통해 관객들과의 인터랙티브를 시도하며 관객의 참여를 통해 실컷 웃으며 풍자된 사회의 한 면을 잠시 생각하게 만드는 작품이었다. 실컷 웃고 즐긴 우리는 대학로를 걸어 뒤풀이 식당에서 연극의 풍자를 떠올리며 다시 한번 더 웃고 학창 시절을 되새기고 직장생활을 회상하여 현재의 상황을 고찰하고 미래의 삶을 엮어보는 시간을 가졌다. 웃을 것이 많지 않은 우리의 삶에서 잠시라도 웃고 떠드는 시간을 가지므로 즐거운 삶을 영위하는 소중한 시간을 함께했다.

고경79산우회 7월 정기산행 ●●●


석룡산 피서 산행

· 일시 : 2026년 7월 31일(금)
· 장소 : 가평 석룡산

고경79산우회 멤버 14명이 가평의 석룡산자락의 조무락계곡으로 계곡 산행과 물놀이를 겸한 피서 산행을 갔다. 몇 년 동안 이어진 피서 산행이라 물놀이터 '람원펜션'과 물가의 데크가 익숙했다. 네 대의 차량에 분승해서 떠났는데 피서철임에도 불구하고 손님이 많이 빠졌는지 큰 정체 없이 일찌감치 도착했다. 동기 대부분은 펜션에 남아서 쉬거나 음식을 준비하고 동기 다섯명은 조무락계곡을 올랐다.

33℃가 웃도는 기온임에도 불구하고 鳥舞樂계곡을 따라 오르니 숲에서 뿜어내는 냉기로 인해 그늘 길이 시원했다. 약 3.5km를 오르

니 복호동폭포가 나타났다. 좀 더 오르자는 제안에 쌍용폭포까지 올랐으나 폭포의 위치를 찾지 못해 복호동폭포로 돌아와서 자리를 잡았다. 발을 폭포물에 담그고 준비한 막걸리와 문어숙회로 간단히 요기했다. 석룡산 정상까지 2.5km라는 안내표지판을 보고 등산하려는 맘도 있었지만, 단체 스케줄에 지장이 있을까봐 포기했다. 차가운 폭포물은 발이 시려서 오래 담그고 있기 힘들었고 좋은 공기와 시원한 계곡물에 도취되 1리터짜리 막걸리 한 통이 순식간에 사라졌다. 폭포와 함께 인증샷을 남기고 하산했다.

람원펜션에 자리를 잡고서 준비한 양갈비구이와 쇠고기구이로 점심을 먹고 개울물에 들어가 작열하는 태양과 씨름하며 물놀이를 즐겼다. 지난주에 내린 장맛비로 인해 석룡산의 조무락계곡을 통과하여 흘러내리는 개울물은 풍성하지 않았지만 깨끗하고 차가워서 뜨거워진 몸을 달래기에 충분했다.

오후 5시가 되자 저녁 식사로 오징어덮밥과 라면, 후식으로는 시원한 수박으로 마무리 하고 하루의 피서 여행(7km, 두 시간)을 정리했다. 정리하고 준비하느라 수고한 집행부(장덕윤 회장, 김명국 사무총장)의 노력과 봉사에 감사드린다.

KUCC 김우창 교수의 다큐영화 관람(기이한 생각의 바다에서) ●●●

- 일시 : 2026년 8월 21일(금)
- 장소 : 사당동 아트나인



다큐 영화 관람

'기이한 생각의 바다에서'는 모교 영문과 교수를 역임하신 한국의 대표적인 인문학자인 김우창 교수의 삶을 그린 다큐멘터리영화다. 고대 후배인 최정단(영문86) 교우가 21년간 쫓아다니며 카메라에 담았던 것을 영화화한 것이다. 사재를 털어 K-Culture에 이어 K-철학을 세상에 알리고자 하는 역할도 있었다. 각종 국제영화제에서 수상을 했다. 주인공은 한국의 지성을 대표하는 김우창 고려대 명예교수다. 이탈리아 최고권위학회인 아카데미아 암브로시아나 정회원으로 선정됐고, 금관문화훈장을 수훈한 인문학의 거목이다. 문학과 동 · 서양 철학, 과학 · 정치 · 예술 전방위로 사유의 지평을 펼쳐 왔기에 피에르 부르디외, 오에 겐자부로 같은 세계적 사상가들이 존경을 표하기도 했다. '심미적 이성', '구체적 보편성', '생태주의' 등으로 요약되는 김우창의 사유와 언행일치한 삶이 담긴 장면을 통해 공동체에 시간과 공간 · 기억 · 고향 · 사물 · 존재에 관한 수많은 질문을 잔잔하게 던지고 있다.

KUPGA79 하계캠프 ●●●

- 일시 : 2026년 8월 25일(화) ~ 27일(목)
- 장소 : 킹스데일CC, 문경CC



킹스데일CC에서

혹서기에도 불구하고 한반도의 정중앙 킹스데일CC와 조령 5악에 둘러싸인 문경CC를 향한 8인의 골프 매니아들이 2박3일의 장정에 올랐다. 이 모임을 사랑하고 골프를 즐기는 8인(강현구, 김성태, 김진호, 노 철, 송상호, 양희창, 정춘돌, 한병로)의 출사표는 2026 붉은 말의 해 뜨거운 불여름 더위도 무색케 하는 즐거움과 미식, 역사 기행과 휴식의 알찬 기행이었다.

첫날 해발 440m의 주흘산, 포암산, 탄항산 등 백두대간의 스카이라인을 품은 문경CC는 가성비 좋게 관리가 잘 되어있는 마운틴코스

로서 탄광지역이 폐광 후 골프장으로 변신했다. 예부터 문경새재를 넘나든 선비들의 염원인 문희경서(기쁜 소식을 듣고 경사스러운 일이 있다)의 스토리는 문희 #2홀에서 이루어지고 있었다. 첫날 동반자들을 위한 장시간 운전을 한 한병로와 김진호는 피로의 여파로 기대에 못미치는 결과를 보였으나 3일째 왕의 계곡에서는 강인한 정신력과 컨디션 회복으로 선전했다. 첫날 하루의 피로는 리조트의 대식당에서 맛본 약돌 가루를 먹여 키운 한돈 삼겹살과 노 철이 68°의 금강주로 만든 特香소주로 즐겁게 날려보냈다.
둘째 날은 아침 라운딩을 마치고 문경온천에서 이틀간의 피로를 털어내고 전직 대통령이 다녀갔다는 새재할매집에서 중식 후 문경새재 1관문과 전통 사극 세트장을 구경하며 휴식 시간을 보냈다. 충주로 이동 중 중원 골퍼들의 맛집 남한강막국수집에서 자가 제면한 막국수, 수육 그리고 부추전과 막걸리 한잔으로 다음날을 기약하며 하루를 마무리했고 특산물 들기름 한 병씩을 귀가 선물로 증정했다.
셋째 날 킹스데일CC는 충주권 퍼블릭 구장으로 시설, 서비스와 송호엔지리어링이 설계한 레이아웃 그리고 세팅 등이 어느 명문 구장과 비교해도 손색없는 최고의 구장으로 유수한 잉글랜드의 서닝데일GC를 모티브 했다고 한다.
귀경을 앞두고 2박3일의 납회는 중앙탑 한우 구이집에서 특수 제작한 화로에 숯 향에 익어가는 한우 생고기와 뭉티기와 육회로 마무리됐다.

고경79산우회 8월 정기산행 ●●●

- 일시 : 2026년 8월 29일(토)
- 장소 : 안산자락길



안산자락길에서

8월 하순인데도 날씨가 더 더워져서 산행을 가볍게 하기로 하고 서대문에 있는 안산을 트레킹하기 위해 16명의 회원(2명은 뒤풀이)들이 독립문역 4번출구 앞에 모였다. 서대문 형무소 자리에 있는 서재필, 유관순 등의 동상, 3.1독립선언기념탑과 순국선열추념탑을 둘러보고 안산자락길에 올랐다. 이진아기념도서관을 지나 데크길을 따라 오르다가 능안정에 도착했다. 아직도 더운 열기로 인해 땀에 흠뻑 젖어서 정자 근처에서 자리를 펴고 준비한 모둠전과 막걸리로 목을 축였다. 건너편에 보이는 인왕산과 북악산, 멀리 보이는 북한산을 바라보면서 이제는 데크길이 없는 산길을 따라 안산의 최고봉인 봉수대(296m)에 이르러 인증 사진을 남기며 쉬었다. 메타세콰이어 숲과 무악정을 지나 가파른 하산길을 따라 내려오다가 서대문의회와 서대문구청에 이르러서 산행(산행거리6km, 소요시간 2.5시간)을 종료하고 뒤풀이 식당으로 자리를 옮겼다. '횟집울릉도'는 각종 회뿐만 아니라 물회로 유명해서 예약이 불가한 곳이라 먼저 온 동기들이 자리 잡고 기다리고 있었다. 더위에 지치기도 했고 운동량도 적어서인지 추가로 시키지 않아도 될 만큼 음식의 양이 넉넉했다. 진행하느라 수고한 집행부(장덕윤 회장, 김명국 사무총장)의 노력과 봉사에 감사드린다.

9월 정기모임 ●●●

- 일시 : 2026년 9월 7일(월)
- 장소 : 공덕동 서리원



9월 정기모임

오곡백과가 무르익는 가을을 앞두고 뜨거운 여름을 잘 이겨낸 동기들이 한자리에 모였다. 두 달 만에 보지만 오랜만에 본 듯 반갑게 인사하고 근황을 얘기하느라 바빴다. 내부 수리하여 더욱 깔끔

해진 서리원은 서비스도 한결 나아진 듯하고 음식의 퀄리티가 더 좋아졌다는 평이다. 사전에 주문해 둔 '대마 할머니 막걸리'로 목을 축였다. 이상현 총회장은 건배사로 "天高馬肥의 계절이 왔어요. 하늘은 높고 술은 마시고 잔은 비우며 마비(?)됩시다!!"라고 말하며 좌중을 웃게 했다.

골프회에서는 조령, 문경에서 가진 하계 캠프 후기와 10월 정례모임을 안내했다. 등산회에서는 하계 물놀이 트레킹 보고와 10월에 있을 영남알프스 횡 · 종주에 대한 설명이 있었다. 당구회에서는 지난 호당회 대회에서 우승(이성훈)과 금번 학번별 호당회 대회에서 4위를 하였음을 보고했다. 축구회에서는 가족 체육대회와 곧 있을 부부 동반 봉평 메밀꽃 축제와 이효석 문학관 참관을 기획하고 있음을 알렸다. 문화회에서는 지난달의 김우창 교수를 소재로 한 영화 '기이한 생각의 바다에서' 관람 소감을 전하고 다음 행사인 한강버스와 서울숲 국제 가든 축제에 관해 안내했다.

이처럼 매월 이어지는 축제와 같은 소모임 행사들이 꽉 차 있어서 동기들의 내면적인 성장에 여러모로 기여하고 있음에 집행부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박수갈채를 보냈다. 다음으로는 딸의 혼사를 앞둔 서유창의 인사말과 오랜만에 합석한 박종배 형의 근황 인사가 있었고 해파랑, 서파랑, 남파랑, 평화누리길 6천여km를 트레킹하는 조청명의 인사도 이어졌다. 최근 백제역사유적지구 해설 경진대회에서 수상한 장민기는 본인의 저서 발간을 안내했다. 잔을 부딪치고 마시는 막걸리에 저물어가는 저녁은 더더욱 건강하자는 마무리 멘트로 모임을 마쳤다.

80 회장 유광후 / 총무 하만우

전체 모임 ●●●

- 날짜 : 2026년 6월 20일(토)
- 장소 : 월류봉 둘레길



월류봉 둘레길에서

올해 봄 야유회는 호산회와 공동 행사로 충북 영동군 소재 월류봉 둘레길(약 9km)을 다녀왔다. 어부인들 포함 34명이 참석했는데 작년 39명보다는 조금 적어 아쉬웠다. 양재역에서 버스 2대로 출발했는데 전국적으로 종일 많은 비가 온다는 예보가 있어 걱정했던 것과는 달리 월류봉에 도착할 즈음 비가 딱 그쳐서 신기하기도 하고 천만다행이었다. 햇빛이 없으니 오히려 걷기에도 좋았다. 월류봉은 그다지 높지 않고 아기자기하면서 물과 어우러진 풍경들이 모처럼 나들이하기에는 안성맞춤이었다. 물길을 따라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면서 땀 흘려 걷는 동기들의 모습을 보면서 이런 행사에 꼬박꼬박 참석해 주는 동기들의 우정과 특히, 행사 준비에 힘을 쏟아준 집행부 친구들의 노고가 다시 떠올랐다. 특히 언제나처럼 앞에서 '향도' 역할을 도맡아 해준 정규언 교수의 헌신이 고맙다. 행사 중간중간 비가 와서 끊긴 길 때문에 되돌아오기도 하고 여정의 절반 즈음 길가 카페에서 쉬느니 마느니 하는 우여곡절도 있었지만, 경영80의 집단 지성으로 잘 헤쳐 나갔다. 처음 맛본 주꾸미 해신탕과 죽으로 마무리한 식사도 수준급이어서 오래도록 생각날 듯하다. 어제 다소 불편한 몸임에도 끝까지 함께해 준 장석수 동기에게 응원을 보내고 어서 건강을 되찾기를 바란다. 우리 고대 경영80 동기들 모두 가을 문화행사, 연말 경영대학의 밤, 호산회, 골프회 모임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서 건강한 삶을 누리고 만면에 웃음 가득한 생이 되기를 기원해 본다.

호산회 7월 산행 ●●●



청계산에서

· 날짜 : 2026년 7월 11일(토)
· 장소 : 청계산

어제까지 장맛비가 오락가락하더니 오늘은 비 소식이 전혀 없다. 최고기온이 33도로 찜통더위일 거라고 한다. 그래서인지 참석자들이 평소에 비해 많이 줄었다. 뒤풀이에 참석하겠다는 유광후, 하만우, 임규화를 빼면 10명이다. 그런데 정현진이 처음으로 참석해 만삭의 배를 한 채 청계산에 도전하겠단다. 청계산입구역에 도착해서 반갑게 인사하며 안부를 묻는다. 이날 코스는 간단하다. 원터골에서 출발하여 매봉에 오르고 옛골로 내려오는 중간에 선녀폭포에 들러 알탕(?)을 하고 내려오는 코스다. 최승석, 박상협 고문이 선두에서 코스를 리드하고 정규언 고문, 최병수 전 산악대장이 후방을 이끌었다. 후미의 정현진의 거친 호흡소리가 계속 신경이 쓰였다. 중턱 정자 옆에서 중풀을 했다. 압구정의 유명한 흑임자 떡과 수제 만두, 사과, 수박, 박훈이 직접 만들어 온 커피 맛이 일품이었다. 중풀을 마치고 컨디션이 좋은 동기들은 매봉까지 올라갔다 오겠다고 하여 자연스럽게 5:5로 팀이 나뉘어 선녀폭포에서 만나기로 했다. 선녀폭포는 어제까지 내린 비로 수량도 풍부했고 물이 맑고 차가워서 산행으로 인한 더위를 순식간에 날려버렸다. 폭포 물에 몸을 담그고 어릴 적 물장구치던 때를 생각하며 동심의 세계로 잠시 빠져들었다. 하산길은 내리막을 빠르게 내려와 뒤풀이 식당인 '매봉산장'으로 향했다. 매번 와서 먹는 오리 능이 버섯전골인데 오리고기보다 국물이 참 맛있었다. 유광후, 하만우, 그리고 임규화가 뒤풀이에 동참했다. 이런저런 이유로 산행은 함께 하지 못했지만, 뒤풀이라도 참석을 해주니 참 고마웠다. 이날 많은 동기들이 이런저런 사정으로 참석을 못했다. 그리고 허리를 다쳐 고생하는 이현우 대장의 빈자리가 크게 느껴진다. 빨리 회복하여 8월 원정 산행에 함께 했으면 좋겠다. 모처럼 참석한 정현진도 계속 참석하여 속히 해산(?)의 기쁨을 맛볼 수 있기를 기대해 본다. 8월에는 더 많은 동기들의 참석을 바라며... 호산회여 영원하라!

호산회 8월 산행 ●●●



가평 한솔유원지에서

· 날짜 : 2026년 8월 8일(토)
· 장소 : 가평 한솔유원지

모처럼 원정 산행으로 가평계곡에 물놀이를 갔다. 양재동 국립외교원 앞에서 출발해 군자역을 들러 경춘가도를 통해 가평의 계곡으로 갔다. 양재역에서 6명만 탑승하고 군자역에서는 20명이 탑승했다. 군자역이 교통의 요지가 됐다. 양양 고속도로를 통해 한솔유원지에 도착하여 우리가 예약한 평상에 조별로 자리를 잡고 삼겹살을 굽고, 홍어회 등을 안주로 한두잔 먹다 보니 얼큰해졌다. 뭔 얘기를 했는지 기억은 잘 나지 않는데 잔만 비우면 채워주는 임규화 때문에 술 먹는 속도가 점점 빨라졌다. 어느 정도 배를 채운 후 전체가 계곡물이 흐르는 강으로 가서 자연스럽게 몸을 담그고 더위를 식혔다. 수영하는 사람, 물싸움하는 사람, 같은 조원들과 김밥말이를 하면서 희희낙낙 웃음꽃이 활짝 폈다. 나이는 60이 넘었지만 노는 데서는 여전히 청춘이다. 아 옛날이여…물놀이를 마치고 조별로 게임을 했다. 경쟁이 되니 모두가 진심이다. 워낙 몰입하다 보니 주변에서 민원이 들어왔다고 한다. 놀 때 놀더라도 조용히 놀아야겠다. 물놀이에 게임을 하다가 뒤풀이 식당에서 닭갈비에 막국수, 그리고 막걸리 한 잔 먹으니 기분 최고였다. 분위기 좋게 식사를 마치고 다시 버스에 올라 귀경길에 올랐다. 서울로 돌아오는 길은 교통이 전혀 막힘이 없이 군자역을 거쳐 양재역에 순식간에 도착했다. 이번 원정 산행을 위해 특별회비를 찬조한 동기들, 적지 않은 회비

임에도 흔쾌히 동참해 준 참석 동기들에게 감사드리고 특히 서 정, 최승석 고문은 사전답사를 통해 물심양면으로 수고해 주어 깊은 감사를 드린다. 비록 이번 산행에 이런저런 이유로 참가하지 못한 동기들 모두 아쉬움을 뒤로하고 우리 건강과 행복을 위해 함께 해 주었으면 하는 바람을 전하며 다음 산행에는 모두 함께할 수 있기를 희망합니다. 호산회여 영원하라!!

호산회 9월 산행 ●●●

· 날짜 : 2026년 9월 5일(토)
· 장소 : 남산 트레킹



남산 천년 타임캡슐 앞에서

오늘 호산회 산행지는 남산 둘레길이다. 다음 주에 동기 둘의 자녀 결혼식이 있어 한 주 앞당겼다. 청명한 가을 날씨로 하늘은 높고 푸르며 햇볕은 강하게 내리쬔다. 충무로역 4번 출구에서 만나서 정규언 고문의 리드로 천년 타임캡슐에 들러 단체 사진을 찍고 한옥마을을 빠져나와 옛 안기부 건물을 지나 남산순환도로로 접어드니 사람들이 많아졌다. 간간이 조깅하는 사람들도 있고, 자전거를 타는 사람들도 있는데 다들 젊어 보이고 생동감이 느껴졌다. 남산도서관 옆으로 새로이 데크길이 생겼다. 이전에는 흙길이었던 곳을 깔끔하게 데크길로 만들어 걷기에는 안성맞춤이었다. 끝 무렵인 노을 전망대에서 단체 사진을 찍고 중풀을 했다. 쉬는 동안 유광후 회장이 상계동의 할머니 돌아가신(?) 이야기를 심각하게 했고 이현우 대장은 비행기 사고에서 유일하게 살아남은 원숭이 이야기를 율동을 섞어 재미있게 표현했다. 학생 시절 풀어놓던 야설들을 들으며 낄낄대니 그 시절로 돌아간 느낌이었다. 중풀을 마치고 남산의 남쪽 야외식물원을 돌아 국립극장으로 해서 장충단공원, 그리고 마침내 뒤풀이 장소인 '평안도집'에 도착했다. 노릿노릿한 족발이 맛있어 보였다. 주당파와 비주류파로 나뉘어 분위기가 무르익어 가는데 하행민이 합류했다. 혼자 남산을 산책하고 시간에 맞춰 뒤풀이에 합류한게다. 함께 해주어 고맙다. 캐나다로 출국한 정현진이가 호산회 회식에 보태라고 10만 원을 하만우를 통해 전달해 주어 오늘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어 또한 감사했다. 오늘 일정을 리드해 준 정규언 고문, 이현우 대장에게 감사를 표하며 함께해 준 15명 동기들에게도 고마움을 표한다. 이런저런 이유로 참석하지 못한 동기들 다음 산행에는 참석할 수 있기를 바라며 백세까지 두 다리로 산행하는 것을 목표로 호산회는 계속 이어질 것으로 믿는다. 호산회여 영원하라!!!

골프회 소식 ●●●

골프회는 사진을 남기지 않아 아쉽지만 6월 2일과 9월 1일에 마이스다밸리 청평에서 5개조의 동기들이 모여 멋진 샷을 선보였다. 다음에는 사진과 후기를 남기도록 해야겠다.


일수회 8월 모임

일수회 소식●●●

12년 이상 이어지고 있는 광화문 점심 모임인 일수회는 과거 강남역 점심 모임인 수삼회 멤버들을 흡수하면서 점차 활성화되고 있다. 7월 1일에는 '영덕회식당'에서 막회와 물회로 즐거운 시간을 보냈고, 10명이 되어 동기회에서 10만 원 지원도 받았다. 끝나고 당구 모임을 만들자는 얘기가 나와 시간이 되는 동기들은 당구도 한게임 했다.

8월 5일에는 을지로 '남포면옥'에 10명이 모여 수육과 생선전을 안주로 맥주와 막걸리를 마시면서 정담을 나누고 냉면으로 마무리했다. 핵심 멤버인 임보혁과 이수영이 빠지고 유광후 회장이 갑작스러운 사정으로 불참했지만 10명이 모이면서 동기회에서 10만 원을 지원받았다. 6월부터 3개월 연속 지원받은 셈이다. 동기회 지원이 소모임 활성화 목적인데 이제 일수회는 정착된 것 같아 앞으로는 동기회 지원을 받지 않기로 했다.

9월 2일에는 '이도곰탕 을지로점'에 10명이 모여 즐거운 시간을 가졌다. 김준경 동기가 합류하면서 과거 수삼회가 완전히 통합되었다는 생각도 들었다. 심각한 이야기는 빼고 젊을 때 놀던 얘기들, 유광후 회장이 여자에게 이상하게 뺨 맞은 얘기, 모 동기의 퇴폐이발소 얘기 등을 들으면서 많이 웃은 시간이었다. 역시 우리 나이에는 질펀한 얘기가 어울리는 것 같다.

85 회장 안경희 / 총무 김태헌

'바이브코딩' 세미나로 열기 후끈 ●●●



강연하고 있는 안경희 동기회장

경영학과 85학번동기회가 지난 9월 11일(금) 저녁 6시 30분, 마포구 합정 · 상수역 사이에 있는 기업경영지원연구소(독막로8길 6, JS빌딩 2층)에서 '바이브코딩 함께 하기' 세미나를 열었다. 강연은 안경희 동기회장이 맡았다. 안 회장은 자신이 운영하는 경제교육 유튜브 채널 '안 박사의 이콘코리아와 안 박사의 토픽스터디'의 영상 제작 과정을 바이브코딩으로 자동화한 경험을 동기들과 나눴다. 바이브코딩은 코드를 직접 짜는 대신 AI에게 말로 설명해서 프로그램을 만드는 방식이다. 안 회장은 쓰임새에 따라 AI 도구를 고르는 기준을 소개하며 "도구부터 고르지 말고, 무엇을 만들지부터 정하라"고 강조했다. 이날 자리에는 김재환(경영대 교수), 이성구, 정하웅, 임준규, 권태우, 채승수, 이해원, 최보선, 최형주, 신은용 동기가 함께했다. 참석자들은 강연 내내 자기 업무와 관심사에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지 질문을 이어갔다. 환갑을 넘긴 나이에도 새로운 기술을 배우려는 열기가 뜨거웠다. 85학번동기회는 앞으로도 이런 자리를 이어갈 계획이다. 관심 있는 동기들의 많은 참여를 바란다.

86 회장 정수연 / 총무 최관섭

호림원 골프 모임 ●●●



호림원 골프모임

고경86 호림원 골프 라운딩이 9월 18일(금)에 진행되었다. 9월 중순에도 뜨거운 햇살이 이어졌지만, 선선한 바람 덕분에 가을의 정취를 느끼며 동기들과 즐거운 라운딩을 함께 했다. 좋은 날씨 속에서 웃고 이야기하며 보낸 하루가 행복하고 감사했다. 올해는 3월부터 9월까지 한 번도 우천취소 없이 매월 만날 수 있었던 뜻깊은 해였다. 함께하는 시간이 당연한 듯하지만, 돌아보면 더욱 감사한 일이다. 올해는 우리가 입학한 지 40년이 되는 뜻깊은 해여서 이번 모임이 더욱 특별했다. 10월에 열리는 입학40주년 모교방문행사가 동기들이 한자리에 모이는, 기억에 남는 행사를 만들어가자고 결의를 다졌다.

고경86 마루회 9월 산행 ●●●



마루회 9월모임

고경86 마루회 9월 산행이 9월 5일(토)에 진행되었다. 9월이지만 아직은 폭염의 기운이 남아 평이한 코스인 아차산 산행으로 이루어졌다. 산행 준비와 먹거리를 챙기고, 산행을 순로롭게 진행한 집행부의 노고 덕분에 편안히 산행을 했다. 코스는 비교적 쉽고 짧았지만, 아차산 정상에서 시원한 산바람을 맞으며 한강을 바라보니 상쾌한 기분이 들었고 무엇보다도 20여 명의 동기들이 함께 하니 피로가 싹 풀리는 기분이었다. 산행을 마치고 시원한 막걸리 한잔으로 우의를 다졌고 10월에 있을 입학40주년 모교방문행사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 모금과 적극적으로 참여하자는 결의를 다지기도 했다.

809 회장 박창수(경영85) / 사무총장 이종제(무역87)

경영 809 치맥번개로 즐거운 여름밤 ●●●


치맥번개

– 박창수 회장 취임 후 첫 친목행사…25명 참석해

2010년 창립돼 올해로 17년 차를 맞은 고려대 '경영809' 모임이 지난 8월 11일 서울 서초구 제일호프 본점에서 '치맥데이'를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박창수 회장 취임 후 처음 열린 친목행사로, 무더운 여름을 맞아 선후배들이 편안한 분위기에서 서로의 안부를 묻고 교류하기 위해 마련됐다. '경영809'는 경영대 80학번부터 89학번까지 참여하는 모임으로, 이번 치맥번개에는 80학번부터 89학번까지 25명의 교우가 참석했다.

행사는 박창수 회장이 참여를 독려하고 이종제 사무총장이 장소 안내와 참석자 모집을 맡아 준비했다. 교우들은 치킨과 맥주를 함께 하며 학창 시절의 추억과 근황을 나누고, 앞으로의 809 모임 운영과 행사에 대해서도 의견을 교환했다. 이날 정종원 교우(89학번)는 아들의 삼성전자 반도체사업부 취업을 기념해 참석자들을 위한 '골든벨'을 울렸다. 참석자들은 축하의 박수를 보내며 기쁨을 함께 나눴다. 1차 모임을 마친 뒤에는 학번별로 별도의 뒤풀이를 이어가며 친목을 다졌다.

이번 치맥모임은 새 집행부가 마련한 2026년 하반기 첫 일정이다. 경영809 모임은 매월 둘째 주 화요일을 정기 모임일로 정하고 점심모임과 골프대회, 송년회 등을 이어갈 예정이다. 향후 일정으로는 9월 8일 점심 정모, 10월 16일 회장배 골프대회, 12월 8일 송년회가 예정돼 있다.

박창수 회장은 "회장 취임 후 첫 행사에 많은 선후배께서 참여해 자리를 빛내주셨다"라며 "809모임이 다시 활기를 찾아가는 만큼 앞으로도 회원들의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라고 회원들의 시원한 여름나기를 응원했다.

909 회장 최창규(경영90)

909 가을 소풍 •••



청계산 등반을 앞두고

9월 19일은 909 가을 소풍날. 우리 KUBS 90학번~99학번 (909)는 아침일찍 청계산에 모였다. 10인단은 서로간에 즐겁게 인사하고, 일단 출발하며 김밥 회식을 했다. 든든하게 배를 채우고 뒤로는 주전부리 백팩을 메고 정상을 향한 첫발을 뗀다. 헉헉... 등산을 오랜만에 하니 힘들었지만, 헉헉... 경치는 좋았다. 어느덧, 옥녀봉을 넘어, 드디어 매봉이다. '내 체력이 왜 이래'라는 회한과 '오늘은 운동했어'라는 뿌듯함과 함께 동료들이 준비해 온 과일로 해갈을 했다. '아~ 살.것.같.애' 라며 주린 배를 부여잡고, 미리미리 예약한 녹두 닭백숙집으로! 막걸리에 사이다를 섞더니 "사랑해요! 밀키스!"라며 윤발이 오빠를 따라 하는 막내 남광민, 감동의 건배사에 이어 시끌시끌. 한 상 차려 나온 녹두 닭백숙, 묵무침에 파전까지 크으~. 우리 10인단은 토요일 정오에 한 시간 반 동안 술판을 벌리고 만취했다. 그 와중에 막내 99학번의 경영대 교우의 밤 성공 개최를 응원했고 메아리처럼 "여기는 내가 낼게"라며 서로 다투는...역시 선후배 사랑은 우리 KU의 Identity 아니던가. 909모임이 출범한지 15년이 되었다. 909 대부 최창규 선배께 감사를 전하며...

· 참석자 : (왼쪽부터) 남광민(99), 진영우(96), 심윤석(97), 윤희도(93), 최창규(90), 김현수(93), 엄수형(99), 강 민(97), 김영일(97)

교우회보 〈호상〉은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기다립니다.

교우회보 〈호상〉은 교우님들의 관심과 사랑으로 만들어집니다.
특별히 알리고 싶은 교우님의 소식이나 모임 소식,
게재를 원하는 수필, 시, 칼럼, 여행기, 만화, 관심 있는 주제를 다룬 글 등의
자료를 보내주시면 교우회보 제작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의 사항 있으시면 아래의 연락처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 TEL 02-922-3762 · FAX 02-922-3763 · E-MAIL kubsa@kubsa.or.kr



고려대, 공인회계사(CPA) 최종 합격자 11년 연속 전국 1위

–제61회 CPA 시험에서 197명 합격, 전체 합격자 6명 중 1명이 고려대

고려대학교(총장 김동원)가 제61회 공인회계사(CPA) 시험에서 대학 중 가장 많은 합격자를 배출하며 '11년 연속 전국 1위'라는 대기록을 세웠다.

회계법인 및 각 대학 집계에 따르면, 고려대는 올해 시험에서 전년 대비 15% 증가한 197명이 최종 합격하여 대학 중 가장 많은 합격자를 배출했다. 이는 2024년 188명을 훌쩍 뛰어넘는 수치로 2016년 이후 최고 기록이다.

타 대학들과의 격차도 한층 뚜렷해졌다. 최근 4년간 고려대는 2위권 대학 대비 40~60명 이상 많은 합격자 수를 기록해 왔으며, 올해 그 격차를 70명 이상으로 크게 벌리며 공인회계사 양성의 절대 강자임을 다시 한번 입증했다. 특히 전체 선발인원이 전년(1,200명) 대비 50명 줄어든 상황에서도 지난해보다 합격자 수가 26명 증가해, '전체 합격자의 약 6명 중 1명이 고려대'라는 압도적인 성과를 거뒀다.

10년이 넘는 시간 동안 최정상을 지켜낸 원동력은 바로 고려대의 체계적인 교육 프로그램과 전방위적 지원 제도다. 특히 경영대학의 CPA 준비반 '정진초(精進礎)'는 경영학과 학생뿐 아니라 회계 전문가를 꿈꾸는 타 학과 학생들에게도 개방되어, 융합형 회계 인재의 육성을 선도하고 있다.

더불어 학습공간 제공, 인터넷 강의 수강료 및 장학금 지원, 실전 모의고사 프로그램 등 실질적인 혜택은 물론 온라인 커뮤니티와 합격 선배들과의 멘토링 제도를 통해 학생들이 학업 과정 전반에서 안정적인 역량을 쌓도록 아낌없는 지원을 이어가고 있다.

고려대 관계자는 "11년 연속 CPA 합격자 최다 배출이라는 성과는 학생들과 교수진의 열정과 헌신, 그리고 학교의 전폭적인 지원이 빚어낸 결실"이라며 "앞으로도 급변하는 금융 · 회계 환경을 선도하며 세계적 무대에서 활약할 최고의 회계 전문가들을 양성해 나갈 것"이라고 전했다.

한편, 고려대학교는 2016년 이후 매년 공인회계사(CPA) 시험에서 대학별 최다 합격자를 기록하고 있다. 금융감독원이 공식 통계를 공개했던 2022년까지의 합격자 수는 ▲2016년 118명 ▲2017년 97명 ▲2018년 114명 ▲2019년 109명 ▲2020년 127명 ▲2021년 152명 ▲2022년 175명이다.

경영신문 717호 발췌

정 년
퇴 임 식



생산관리부터 지배구조까지, 34년과 25년의 강단을 마치다

고려대 경영대학, 박광태·김진배 교수 정년퇴임식 개최

고려대학교 경영대학이 박광태 교수와 김진배 교수의 정년퇴임식을 열고, 오랜 시간 학교와 학문 공동체를 지켜온 두 교수의 여정을 함께 돌아보는 시간을 마련했다. 수십 년간 강의와 연구, 후학 양성에 헌신해 온 두 교수를 향해 동료 교수들과 제자들은 깊은 감사와 따뜻한 축하를 전했다.

이날 퇴임식은 사회자의 개회로 시작됐다. 이어 이현석 교수가 박광태 교수의 약력을, 유지송 교수가 김진배 교수의 약력을 소개하며 두 교수가 경영대학에서 쌓아온 시간의 무게를 되짚었다. 김언수 학장의 퇴임식사에 이어 총장 감사장과 법인 감사패, 명예교수 추대, 훈장·표창 전달이 이어졌다. 박광태 교수는 정부 포상 추천으로 옥조근정 훈장을, 김진배 교수는 국무총리 표창을 받았다. 이어 제자들이 마련한 감사패와 꽃다발이 두 교수에게 전달되며 오랜 헌신을 기리는 자리가 이어졌다.

행사의 중심에는 무엇보다 두 교수의 퇴임사가 있었다. 박광태 교수는 34년 6개월에 이르는 교수 생활을 한 편의 영화처럼 돌아보며, 제자와 동료, 가족에 대한 깊은 감사를 전했다. 김진배 교수는 하버드대학의 성인발달연구를 인용하며 인간관계가 행복의 핵심이라는 깨달음과 함께, 함께해 온 후배 교수들과 가족에 대한 고마움을 담담하게 풀어냈다.

퇴임사 이후에는 단체사진 촬영이 이어졌다. 고려대학교 경영대학은 오랜 시간 학교와 함께해 온 두 교수에게 깊은 감사를 전하며, 앞으로의 여정에도 뜻깊은 성취와 평안이 함께하기를 기원했다.

경영신문 717호 발췌



교 수 퇴 임 사


김진배 교수

이렇게 참석해 축하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저는 굉장히 어려운 환경에서 태어나 크고 작은 역경을 겪었습니다. 많은 노력 끝에 이 자리에 서게 되었지만, 막상 퇴임을 맞고 보니 제가 이룬 것들이 온전히 저 혼자의 노력만으로 얻어진 것은 아니라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나름의 노력과 교수로서의 평균적인 역량은 있었겠지만, 돌아보면 참 많은 분들의 도움이 있었기에 여기까지 올 수 있었습니다. 고려대학교 경영대학이 저를 교수로 받아주신 것, 그리고 그 이후 이루어진 성과들이 결국 고려대학교 경영대학이라는 이름 덕분이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정말 큰 영향을 주신 이 자리의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고려대학교 경영대학이 제게 미친 영향은 커리어에 그치지 않고, 개인적인 삶에도 깊이 닿아 있습니다. 교수라는 직업을 참 사랑하는데, 이 직업이 좋은 이유 중 하나는 어떤 모습이든 좋게 봐주시는 분들이 많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늘 감사한 마음으로 지내왔습니다.

하버드대학교에는 1930년대부터 시작된 유명한 성인발달연구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행복하고 건강한 삶을 사는지 오랜 기간 수백 명을 추적한 연구인데, 그 결론은 명료합니다. 깊고 지속적인 인간관계를 맺은 사람이 노년에 행복하고 건강하다는 것입니다. 이 연구를 처음 접했을 때 제 학위논문 주제였던 기업 성과와 보상의 관계에 관한 연구와 맥이 닿아 있다는 사실이 무척 반가웠습니다. 그리고 이 연구는 이후로도 제게 많은 영향을 미쳤습니다.

돌이켜보면 저는 이곳에서 참 깊은 인간관계를 맺으며 행복한 시간을 보냈습니다. 특히 선배 교수님들보다 후배 교수님들과 가까이 지내는 편이었는데, 여러분이 제게 늘 에너지를 주셨습니다. 특히 오랫동안 함께해 온 토론회 모임 여러분께 특별한 감사를 드립니다. 다만 젊은 교수님들과 가까이 지내다 보니 정작 제 또래 친구들과는 소원해진 부분도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연구에서도 노년의 건강과 행복에 가장 나쁜 영향을 미치는 것이 사회적 고립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께서 앞으로도 저와 좋은 관계를 이어가 주시기를, 이따금 찾아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이 자리를 빌려 꼭 감사드리고 싶은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제 아내입니다. 제가 고려대학교 경영대학에 공헌한 것이 있다면 그 상당 부분은 아내의 몫입니다. 학교 일을 할 때마다 늘 곁에서 지원해 주었고, 집안일보다 학교일을 우선하도록 배려해 주었습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께, 그리고 고려대학교 경영대학 전체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김진배 배상





박광태 교수

먼저 바쁘신 가운데도 귀한 시간을 내어 참석해 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돌아보면 정년퇴임이라는 말이 아직도 낯설게 느껴집니다. 하지만 오늘 이 자리에 서니 영남대학교에서의 시간과 고려대학교에서의 30년 6개월, 모두 합쳐 34년 6개월의 교수 생활이 한 편의 영화처럼 눈앞을 스쳐 지나갑니다. 저는 서울대학교에서 산업공학을 공부하고 미국 캘리포니아대학교 버클리캠퍼스에서 박사학위를 받은 뒤 영남대학교 경영대학에서 4년간 교수로 재직하다 고려대학교 경영대학으로 자리를 옮겼습니다. 그리고 지난 30년 6개월 동안 고려대학교와 함께하며 제 인생에서 가장 소중한 시간을 보냈습니다.

젊은 시절에는 좋은 연구자가 되고 싶었고, 시간이 지나면서는 좋은 교육자가 되고 싶었습니다. 이제는 좋은 동료로, 좋은 스승으로 기억되고 싶다는 마음입니다.

그동안 생산관리를 중심으로 시작한 연구를 서비스와 물류까지 확장하며 시대의 변화에 맞는 연구를 이어가고자 했습니다. 또한 한 연구센터를 맡아 관련 기관과 함께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며 학교와 센터의 발전에 작은 보탬이 되고자 했고, 무엇보다 학문이 사회와 기업을 잇는 작은 다리가 될 수 있었다는 사실을 뜻깊게 생각합니다. 부탁을 잘 거절하지 못하는 성격 탓에 한때는 경영대학의 여러 보직과 여러 학회의 이사직을 동시에 맡기도 했습니다. 지금 생각하면 열심히 산 것인지 거절을 못한 것인지 아직도 잘 모르겠지만, 그 덕분에 더 많은 사람을 만나고 더 넓은 세상을 배울 수 있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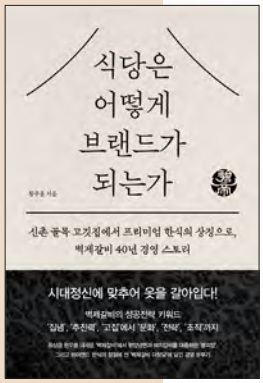
무엇보다 제 인생의 가장 큰 자랑은 제자들입니다. 함께 연구했던 제자들이 오늘날 여러 대학과 연구기관, 산업계에서 훌륭한 연구자와 교육자로 성장한 모습을 볼 때마다 교수로서 이루 말할 수 없는 보람을 느낍니다. 경영대학 교직원들과 함께 산을 올랐던 추억, 정년을 앞두고 전공 교수님들과 베트남 대학에서 공동 워크숍을 하고 함께 여행했던 시간 역시 오래도록 잊지 못할 소중한 기억으로 남았습니다. 돌이켜보면 그 모든 순간마다 참 좋은 사람들이 제 곁에 있었습니다. 오늘 제가 이 자리까지 올 수 있었던 것은 결코 저 혼자의 힘이 아닙니다.

늘 함께해 주신 선배 교수님과 동료, 학교를 위해 애써주신 직원 여러분, 그리고 무엇보다 저를 믿고 함께 해 준 제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제가 이 자리에 설 수 있었던 가장 큰 힘은 제 가족이라고 생각합니다. 바쁜 직업 때문에 세 아이와 충분한 시간을 함께하지 못했음에도 아이들을 훌륭하게 키워준 아내에게 이 자리를 빌려 다시 한번 깊이 감사드립니다. 또 미국에서 바쁜 직장생활 속에서도 오늘 이 자리를 위해 먼 길을 와준 큰아들에게도 고맙다는 말을 전합니다.

오늘은 정년을 맞는 날이지만, 학문과 연구를 향한 마음만은 변하지 않을 것입니다. 앞으로도 후학들과 함께 배우고 연구하며 고려대학교와의 소중한 인연을 이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난 34년 6개월을 돌아보며 저는 한 가지를 배웠습니다. 논문의 수보다 사람이 남고, 책의 권수보다 제자가 남고, 직함보다 인연이 남는다는 것입니다. 저는 참 좋은 사람들과 함께 살아온 행복한 사람이었습니다. 고려대학교는 제게 직장이 아니라 삶이었습니다. 34년 6개월 동안 소중한 인연을 맺어주신 모든 분들께 깊이 감사드리며, 여러분 모두의 건강과 행복, 그리고 사랑하는 고려대학교 경영대학의 무궁한 발전을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박광태 배상





식당은 어떻게 브랜드가 되는가

서명 식당은 어떻게 브랜드가 되는가
저자 황주윤
출판사 따비
출판일 2026.4.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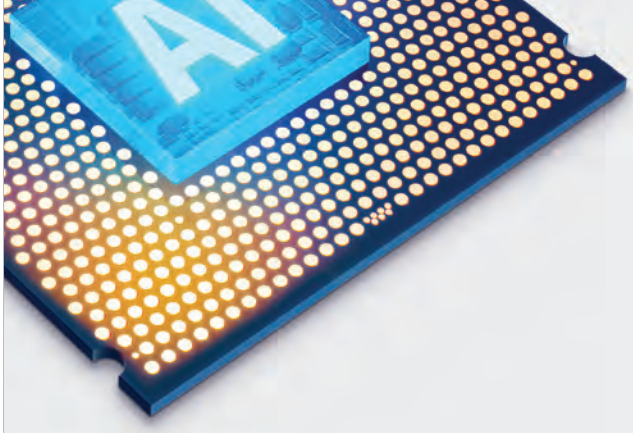
〈식당은 어떻게 브랜드가 되는가〉는 신촌 골목의 '벽제갈비'를 프리미엄 한우구이 음식점 브랜드로 키워낸 김영환(경영66) 교우의 외식경영에 관한 이야기다. 고품질 재료 사용, 강남과 인천공항으로 시장 확장, 센트럴키친을 통한 맛과 품질의 표준화, 각 분야의 장인으로 서기까지 기회·동기부여를 통한 인재 육성을 통한 브랜드 구축과정과 해외 진출의 실패 및 가능성 확인, 경영 승계 과정에서 벌어진 후계자와의 갈등과 봉합 중에 발견한 터닝포인트 등 단순히 창업 성공담이 아닌 수많은 시행착오와 반복되는 좌절을 딛고 브랜드가 되기까지의 스토리를 담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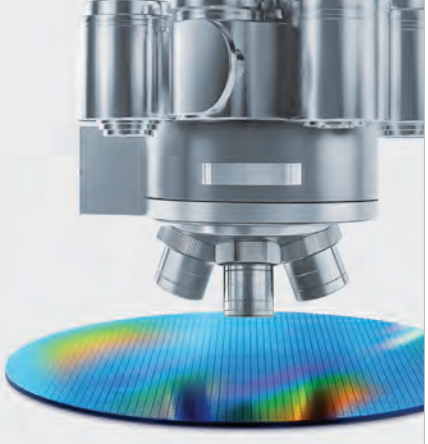


70, 다시 학생이 되다

서명 70, 다시 학생이 되다
저자 김창수(경영73)
출판사 지식과감성

40년 가까이 삼성에 몸담았던 김창수 교우가 은퇴 후 인생 3막의 여정을 책으로 엮었다. 김창수 교우는 70세에 미국 캘리포니아대 샌디에이고 캠퍼스(UCSD) 학생이 되어 다시 배움을 시작했다. 책은 치열했던 삶의 순간마다 내린 선택이 어떤 의미였는지 되짚으며, 그 시간들을 하나의 흐름으로 잇는다.





HELLO TOMORROW





우리가 만드는 건, 단순한 기술의 혁신이 아닙니다.
에너지의 한계가 없는 내일,
산업 환경의 한계가 없는 내일,
첨단 기술의 한계가 없는 내일입니다.
두산은 오늘도, 세상의 기대를 넘어

한계가 없는 내일을 위한 도전을 이어갑니다.

DOOSAN



두산그룹 회장 박정원 (경영81)



MIGHT & MAIN(주)

사장 최 철 원 (무역88)